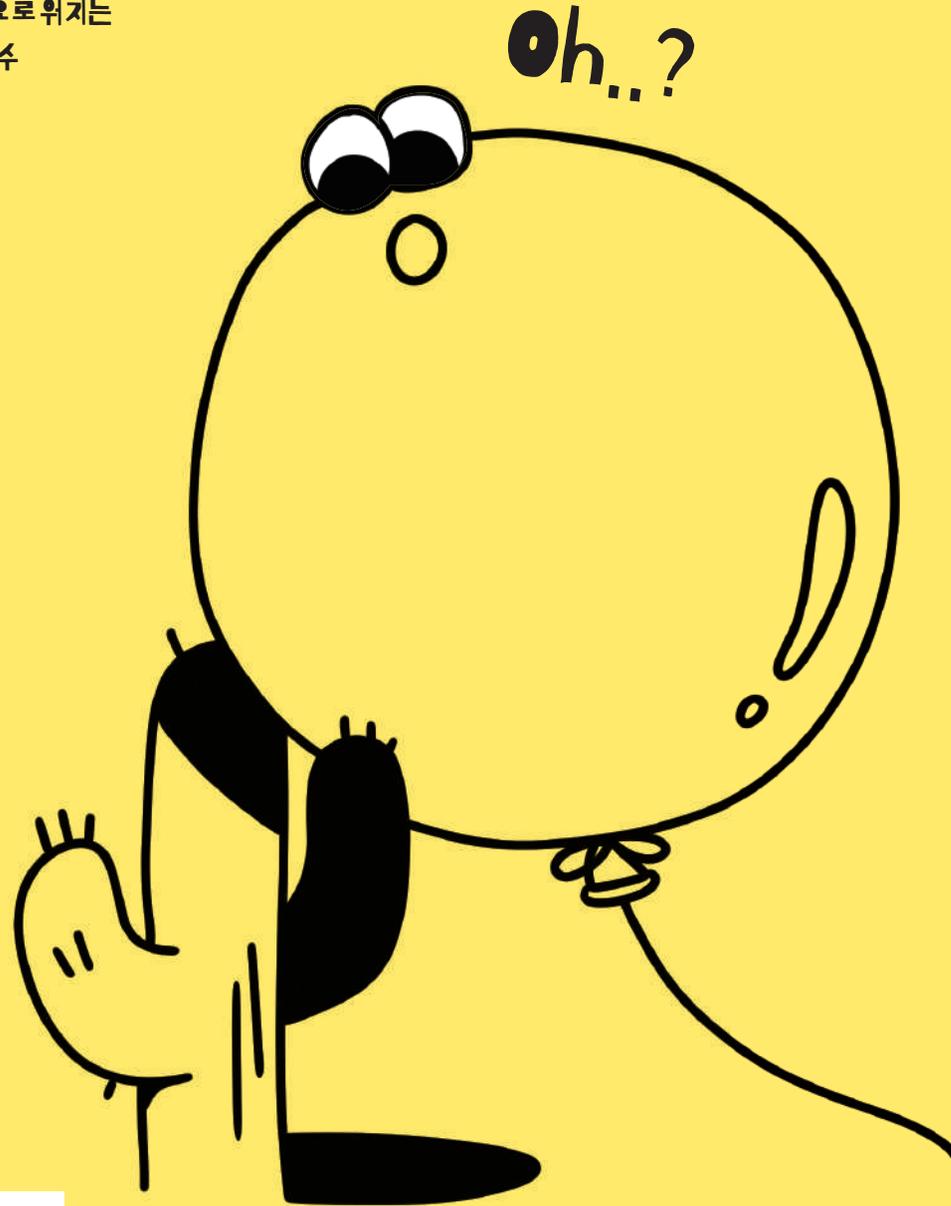


2024.
January
vol.461

—
삼이
풍요로워지는
한 수



01
호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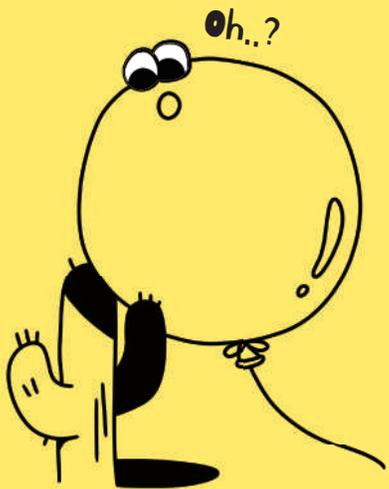


with IBK
IBK MAGAZINE

Curiosity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

호기심
가득한 세상





궁금증의 문을 열어
세상을 향한 관심 어린 시선이
계속될 수 있도록

IBK가 존재하는 이유

Contents

2024. January
vol.461

내면의 힘(력力)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심心)을 나누는
IBK 시너지, 첫 번째

호기심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 2024년 1월 2일
발행인 |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 조민정, 김태경
편집위원 |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 더에이치(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8

에세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10

IBK 양케이트

호기심 가득한 IBK!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디를 탐험할까?

18

타인의 생각

변화와 성장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호기심

24

IBK가 만나다

호기심이라는 세계
장동선 뇌과학자 · 과학 커뮤니케이터

30

체크리스트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힘
나의 호기심 지수는?

32

IBK드끼

우리들의 행복한 냉·삼 타임
① 본점 편 전주집

38

그곳에 가면(국내편)

천사대교 건너 어떤 섬이 나올까?
신안 5섬 여행

44

그곳에 가면(해외편)

지중해와 맞닿은 알렉산더의 도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50

IBK산 ①

올해도 관촬을 거야
팔공산

58

IBK버킷리스트

계획과 소망 가득한 한 해
손맛 담긴 나만의 달력

64

IBK동호동락

음악이 있어 즐거운 인생!
밴드동호회 블루체인지 & 조기경보

72

그때 그날 한 컷

1월에 일어난
이야기

74

헬스 케어

오늘이 가장 젊기에 '슬로 에이징'
출퇴근길에 챙기는 건강 리추얼

76

요즘, 시선

푸드 경쟁 극과 극
제로 푸드 vs 탕후루

80

IBK히어로

금융 트렌드의 새로운 혁신
삼정동지점

90

히든챔피언

요리를 더 쉽고 더 맛있게
(주)해마글로벌 김지훈 대표이사



96

당신의 품격

연탄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장 '박재준 대표'

102

창공, 날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IBK창공 기업
홈체크, (주)하이어다이버시티, (주)플렉스데이, 이비오(주)

108

잡학 사전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 외치는
데님은 광부의 작업복이었다

110

우리말 한 걸음

뜻도 어감도 예쁜
순우리말 모아보기

112

IBK뉴스

이달의
뉴스

114

이달의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117

부록

2024 살림 노하우
생활 꿀팁 파헤치기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 월트 디즈니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것만이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

나답게, 부모답게, 선배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고민하는 과정도,
퇴근 후 나만의 소확행을 발견해내는 순간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부모가, 선배가 되기 위해
새로운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게 아닐까?

2024년 매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우리는 이미,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호기심 가득한 IBK!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디를 탐험할까?

영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보았던 투명망토는 호기심의 상징이다. 평소에는 가볼 수 없는 곳이나 궁금했던 것들을 투명인간이 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부터 탐험하게 될까?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이 호기심에 대해 IBK인들에게 물어보았다.

📅 설문기간 : 2023. 11. 28. ~ 12. 11.



1위
소원 성취 **53.1%**

투명인간이 된 IBK인들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역시 평소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드림카를 마음껏 타본다거나, 무료로 비행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한다거나, 티켓팅이 어려운 공연을 몰래 들어가서 감상한다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바라본다거나 하는 것들. 평소에는 이를 수 없지만 사소하고 귀여운 소원들이다. IBK인들의 귀여운 소원, 이뤄지길 바라~!

#드림카 #세계여행 #덕질 #귀여운_소원



2위
궁금해, 궁금해! **19.8%**

투명인간이 되어 평소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겠다는 IBK인들도 있었다. 어떤 참여자들은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생활을 살펴본다거나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훑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성공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성공한 기업인들의 하루 루틴을 살펴본다거나 유명 투자자의 주식 정보나 투자 내용을 엿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투명인간이 되어서도 성공을 생각하는 IBK인들!

#우리아이_훑쳐보기 #빌_게이츠 #성공루틴 #투자_정보



3위
기타 **16.2%**

기타 의견으로도 참 귀엽고 재미있는 의견이 많았다. 남편이 부르면 사라지기, 기출문제 미리 보고 수능 다시 보기, 사파리에 가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기,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파생자격증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넣어놓기 등. 이런 기발한 상상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역시 IBK인들의 상상력에는 끝이 없는 걸까?

#남편과_숨바꼭질 #잠자는_사자 #기출문제 #상상력



4위
세계 평화 **10.9%**

세계 평화를 위해 이 한 몸 숨기리라?! 투명인간이 되어 세계 평화에 앞장서겠다는 IBK인들도 있었다. 첩보 활동을 한다거나 북한에 가서 씨크릿 파일을 빼내오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몰래 구해주고 싶다는 마음 따뜻한 의견도 있었다. 또 분쟁 지역의 인질과 포로들을 풀어주겠다는 멋진 생각까지. 투명인간이 되어서도 공익을 위해 힘쓰겠다는 IBK인들, 전생에 히어로였던 걸까?!

#세계_평화 #첩보활동 #씨크릿_파일 #숨은_히어로

트트넘 경기장 찾아가서
그라운드를 누비며
손흥민의 스피드를
느끼면서
관람하고싶음^^

#일산성석지점 유관현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진실을
알고 싶고 그 시대로 투명인간이 되어 가보고 싶어요.
또한 나의 전생과 미래도 투명인간이 되어 탐험하고
싶어요.

#고척동지점 이선옥



원하는 차 마음껏 타보기 ><
내 차처럼 운전도 해보고 조수석에도 타고~

#시화공단지점 정윤경

비행기 타고 세계여행을 가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많은
미국의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그들의 삶을 단 하루라도
느껴 보고 싶습니다!

#공릉동지점 노희진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파리에 가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기

#IT시스템운영부 윤달현



아이유 콘서트장 가서
아이유 바로 옆에서
콘서트 구경하기!

#혁신금융부 김용범

영국 프리미어리그 모든 경기장 여행!

#IT기획부 이승환



남편이 부르면
사라지기

#개인디지털사업부 이윤경



자녀들의 일상을 살펴보기.
그리고 서프라이즈!!
보고싶다

둥둥이들~~^^

#양재동지점 한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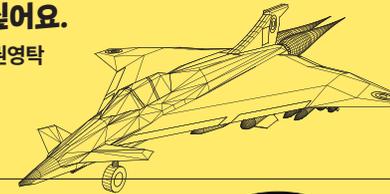


북한 관저에 가서
시크릿 파일
가져오기^^

#신길동지점 김통일

스텔스기를 타고 평양
심장부로 들어가서 북한과
소련의 수상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싶어요.

#개인고객부 권영탁



5세 딸 아이의 유치원을 따라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 듣곤 하는데 딸의
사회생활을 엿보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재밌습니다당 ㅎㅎ
#남대문지점 고인실



크렘린
대궁전에 가서
세계평화실현

#IT금융개발부 정다운

아이 엄마다 보니
우리아이 학교수업
잘하는지 물어
참관수업 하고 싶어요!

#워커힐지점 정소영



티켓팅 힘든 뮤지컬
VIP석 가서
구경하기!!

#서판교지점 김동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남자친구 몰래
남자친구 핸드폰
열어서 보고 싶어요.

#신당역지점 윤하영



투명 인간이 된다면
위험한 상황 속의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삼송테크노지점 이혜민



전 세계 어디든
가보기!
#수원고색지점 홍연경



크루즈 여행
프리미엄룸으로
세계 일주하기~~!!!
#송현동지점 권정자



부유한 자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IT글로벌개발팀 남정호

만 2세인 우리 자녀의 첫 사회생활인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합니다.
엄마 아빠 없이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기업디지털사업부 황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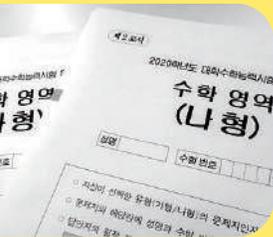
집에서 나 홀로
누워있기!!!
(육아에 지친 사람
모두 쉬자!!)
#여의도중앙지점 양인



최근 영화 <3일의 휴가>
내용처럼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효도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평동공단지점 노순화



임영웅
콘서트마다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에서
관람하고
싶어요!!!!
#인천동부지역본부 양정인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문제 만들 때 따라 들어가서
기출문제 미리 본 후 수능 다시
보기. 문제 미리 본다고 다맞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가산테크노지점 이성엽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고
여행하기!
#대림동지점 조영미



비행기 타고 세계
곳곳 여행하고
싶네요.
퍼스트 클래스로~~!
#평촌아크로타워지점 김선명

내 몸 장기 구석구석
타임캡슐 타고
돌아다니기
#반포자이WM센터 조화연



좋아하는 연예인(백보검)
소속사와 집에 놀러 가보기...!!
#시흥동지점 정수경



자유부인 되어 홀로
세계여행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면목동지점 윤혜령



맛집 가서
레시피
알아내기!
#IBK고객센터 최지선



NASA 미항공우주국 우주선 타고
우주로 GO~~!
#카드마케팅부 이진숙



놀이공원 가서
줄 안 서고
놀이기구 타기
#개인디지털사업부 이하늘



뮤지컬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기 +_+
비싼 뮤지컬 몇 번이나 계속 보기...
#삼성동지점 강성희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에 가서 어떤
곳인지 보고 와서 튀르키예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은 얘기를 해도 잘
들라요~^^)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투명 귀약 그 누구보다
빠르게 타기
#개인고객부 김연지



루브르 박물관 휴일에 몰래 들어가서 느긋하게
미술품 관람하기
#역삼중앙지점 김민정



청보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개인디지털사업부 현아연



북한땅 가보기, 백두산도 가보고 평양시내도
가보고, 돈 주고도 하기 어려운 거라 해보고 싶네요.
#삼송테크노지점 최효선



줄 서서 들어가는 모든 곳 먼저 들어가!!!
어떤 곳이든 새치기해보고 싶어요 ㅋㅋㅋ
#정관지점 표정화



전쟁, 분쟁으로
억울하게 잡혀있는
인질과 포로
구해주기
#전주지점 김재운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야생동물 앞에서
구경하기
#카드마케팅부 이혜경



빌 게이츠
루틴
옛보기
#천안아산역지점 기은혜

미국의
51구역(Area 51)로
들어가서
외계인 있나 보고 오기
#공릉역지점 김범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싶다!
#동광주지점 김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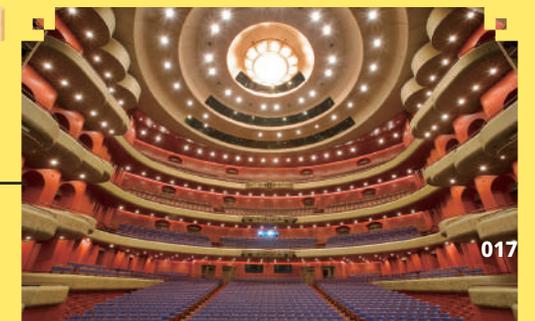
우리 아이들 하루 스케줄 내내 따라다니기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요^^
#김해산단지점 이재영



투명인간이 된다면
동심으로 돌아가 아무
눈치 안보고 놀기
#서여의도지점 정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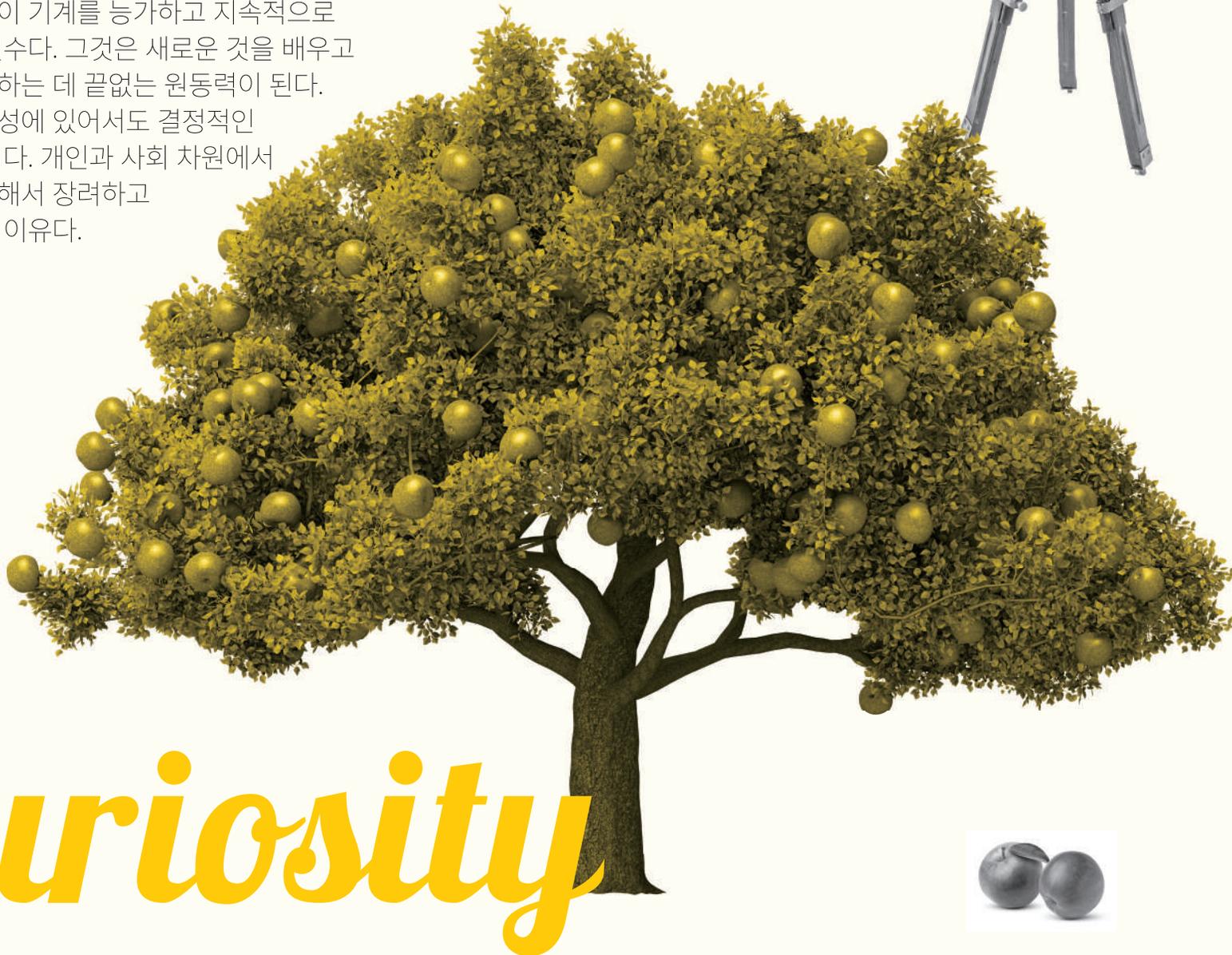
내가 바로 오페라의 유령!
박스석에 몰래 서서 뮤지컬 관람!
#동부이촌동WM센터 구슬이



변화와 성장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호기심

호기심은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며 창조하는 데 끝없는 원동력이 된다. 리더십과 창의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호기심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이유다.



Curio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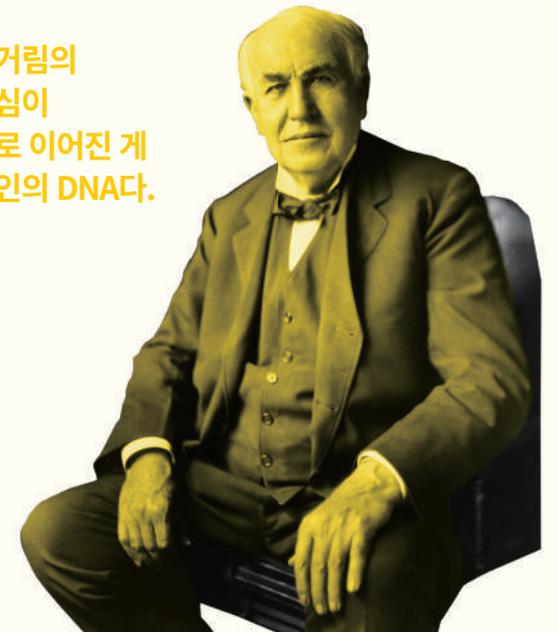
호기심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어려서부터 쌓인 호기심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얻은 지혜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발명왕 에디슨은 달걀을 직접 풀어 부화를 시도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는 몰상식한 행동과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당했다. 요즘 말로 ‘꼴통’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에디슨은 인류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말을 기억하자.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창의적인 혁신에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최고의 명문 대학 출신 인재를 채용하기로 유명하다. 그런 맥킨지조차 최근 들어 다양한 경력의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성적은 형편없지만 자기 사업을 해봤거나 1년 동안 휴학하고 혼자서 서비스 서커스 공연을 하며 유럽을 일주한 경력의 인재들이 맥킨지에 당당히 입사하고 있다. 인재 채용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발상의 전환이다.

한때 삼성의 이병철 초대 회장은 관상 면접을 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를 이은 이건희 회장 대에 와서는 창의 인재를 뽑기 위해 관상 면접을 철회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세계적인 천재급 인재를 뽑아야 한다면서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기계의 발달로 과거의 노동 생산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단순 반복되는 일은 로봇에게 시키고, 인간은 여가시간을 즐기며 인간이기에 가능한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력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웃거림의 호기심이 창의로 이어진 게 한국인의 DNA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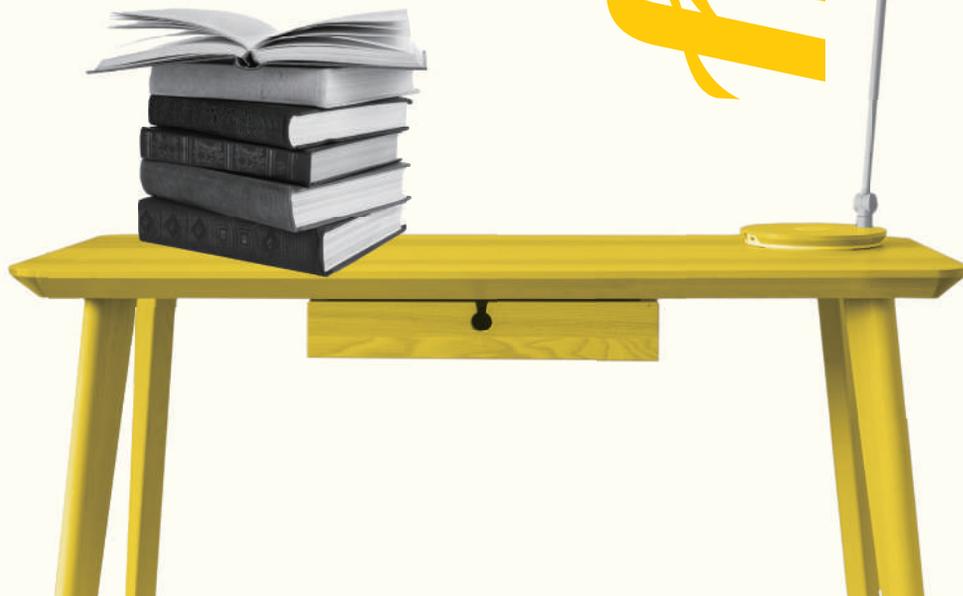
한국인의 호기심 DNA

어느 시대든 기업의 핵심 역량은 사람이다. 그중 사람의 호기심이 평생을 좌우한다. 호기심이 있고 없고는 간단하다.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상상하며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축에 속한다. 나이를 먹어도 늘 청년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호기심의 유무(有無)에서 오는 차이는 제법 크다. 우리 민족은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1901년 독일인 겐테 기자는 말했다.

“그간 조선을 방문하고 기행문을 썼던 여행자들은 조선인의 참기 어려운 관심과 지나친 호기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는데, 아무래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호기심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호기심이 방해가 된 적은 없다. 그들의 호기심은 선의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절대 사람을 해치거나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 기웃거림의 호기심이 창의로 이어진 게 한국인의 DNA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팝과 K컬처 발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호기심은 성인에게도 필수다. 어린아이 때는 대부분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다. 자라면서 호기심은 점점 퇴색해간다. 왜 그럴까? 먼저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강조하고 표준화된 시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들이 표준화된 답안을 암기하도록 독려한다. 그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와 호기심이 방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위해 공부하느라 자신의 관심사나 호기심을 탐구하는 데 소홀하다.

Creativity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면 업무가 반복적이며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창의적인 사고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집중하도록 만든다. 결국 성인은 일상 업무에 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개인적인 호기심을 따르는 데 제한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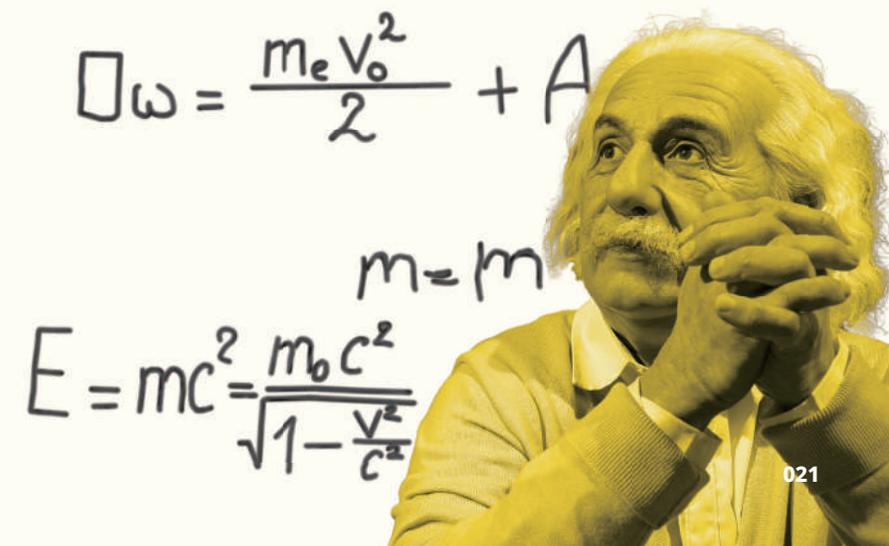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정보 과잉 현상을 초래했다. 사람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질문하는 대신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답을 얻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깊이 있는 사고와 호기심을 발휘할 기회는 줄었다. 요즘은 성공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그로 인해 자신의 호기심을 탐구하기보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따르기에 급급하다.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개인의 창의적인 관심사보다는 ‘실용적인’ 경력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성인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하게 한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몰입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호기심을 추구할 여유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어른은 자신의 호기심을 탐구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답을 얻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깊이 있는 사고와 호기심을 발휘할 기회는 줄었다.

거룩한 호기심을 아시나요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원, 삶, 현실의 경이로운 구조 등 이런 신비들을 생각해 보면 경외감이 들 정도다. 이런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매일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거룩한 호기심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거룩한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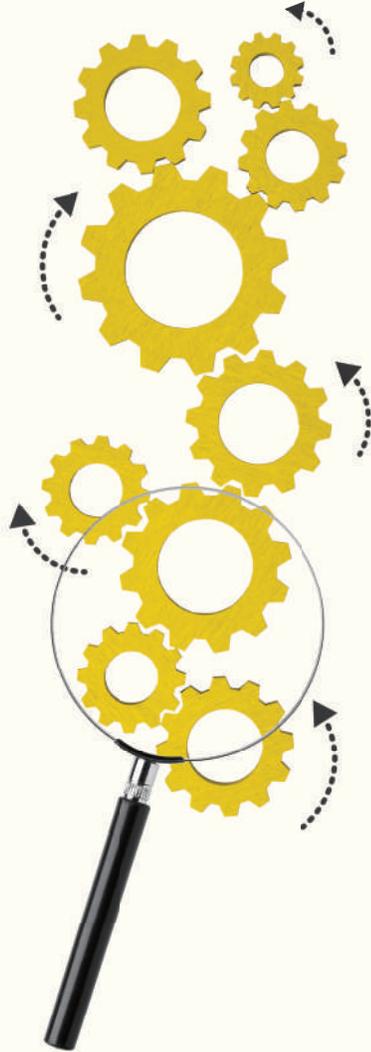


호기심과 창발적 사고는 쌍으로 가는 파트너다. 호기심 많던 에디슨,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등은 학력 파괴자들이다. 동시에, 학업 부적응으로 학교를 나와 자수성가한 대표주자들이다. 아이를 개러지(Garage, 차고)로 보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피볼 일이다. 개러지에서 탄생한 호기심의 성과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특히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게 커다란 흥밋거리였다. 점차 마음이 어린 사람인지, 인정이 많은 사람인지,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등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신기하게도 뇌 안에 ‘거울뉴런’이 있음을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인 리졸라티(Giacomo Rizzolatti) 교수는 발견했다. 모방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거울뉴런’이다.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때 이 ‘거울뉴런’은 열심히 반응한다고 한다. 이는 호기심의 원천인 친화력과도 연관이 깊다. 지금도 사람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나의 기질은 아마도 어릴 때 형성된 공감과 소통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궁금하면 알아야 하고 배우기를 지속한다. 특히 지적 호기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성화됨을 깨닫는다.

호기심이 이끄는 삶

나는 평범한 옆집 엄마였다.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며, 작가이자 수필가, 칼럼니스트, 객원 기자, 디지털책글쓰기대학 사무총장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책 쓰기 교육을 진행하고, 챗GPT로 책 1권 끝내기 강좌를 열어 책 쓰기를 원하는 이들을 코칭하며 조금이나마 사회에 일조하고 있다. 남은 여성,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코미희망장학회’의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코미희망장학회는 내전 중인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미얀마 유학생을 돕는 단체다. 이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호기심의 위력을 경험하며 권장하는 이야기는 직장 조직 내에서 직원의 호기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호기심 신장’이야말로 혁신을 주도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며, 보다 매력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울 기회의 제공이다. 예를 들면 워크숍, 온라인 강좌 또는 초청 연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함께 작업하도록 권장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직원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등 호기심을 계속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ploration



글. 김영희

끝내엄마육아연구소 대표, 육아 전문 강사이자 작가다. 디지털문인협회 디지털책글쓰기 분과위원장, 디지털책글쓰기코칭협회 부부장, 책글쓰기대학 사무총장, 칼럼니스트, CTN 객원기자, 더리치아카데미 전문위원, 4차산업혁명강사(KCERN) 활동 외에 지은 책으로는 <끝내엄마 VS 끝내주는엄마>, <아이만 빼고 다 바꿔라> 등이 있다.

발전시키도록 직장 내 지원이 절실하다.

직원들이 질문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문화를 장려해 호기심을 키워야 한다. 이는 모든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고 고려하는 정기적인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 또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경영진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즉, 직원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략을 구현하면 호기심이 장려될 뿐만 아니라 조직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 개인과 사회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다. 호기심 가득한 개인이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건 자명한 일일 테니까.

“한국인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어린아이 같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2004년에 한 말은 희망적이다. 변화와 성장의 첫걸음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지식을 갈구하는 도구다.



Jang Dong-seon

호기심이라는 세계

장동선 뇌과학자·과학 커뮤니케이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뇌는 이러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말한다. 그리고 이런 뇌의 존재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호기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이라는 세계는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스스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세계였다.

Q. 뇌과학자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구체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보통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과학을 ‘쉽게’ 전달해주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과학인데 사람들은 과학을 ‘안물안궁’ 식으로 대하곤 해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게 하는 것을 목표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과 유튜브 출연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KBS2 드라마 <두뇌공조> 자문과 출연 후 가진 인터뷰에선 “인간은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늘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 중 호기심은 변화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실 인간의 뇌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했어요.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자 뇌가 존재하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주변에 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웃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까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요지부동인 거죠. 뇌가 없는 미생물, 박테리아, 식물들은 다 타고난 유전자의 계획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만약 세상이 변했는데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만 움직인다면 그 종은 멸종되겠죠. 그런데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가장 커서 경험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관성이 있어요. 이러한 뇌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호기심입니다. 뇌는 위기가 닥치거나 위험한 상황을 겪었을 때 가장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호기심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부터 뇌가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뇌가 있지만 호기심이 없다면 세상에 대해 ‘안물안궁’,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원동력이 호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Q. 독일 생활 중 ‘남다른’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대한 호기심을 가졌고, 그 호기심이 인간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고, 뇌과학계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의 호기심의 원천은 어디서 비롯됐나요?

호기심의 원천은 다양한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기숙사였어요. 한 친구는 아프리카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에게는 5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엄청 자유분방한 문화 갖고 있는 친구였죠. 반면에 이라크,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들은 남에게 머리카락도 보여주면 안 되는 문화권에서 자랐고요.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낸 경험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등의 질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호기심이 호기심을

낳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정의가 깨지는 순간 궁금증이 생겨나고, 그 궁금증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걸 알게 돼요. 생각해보면 독일 생활을 통해 겪은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경험들이 호기심을 더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Q. 혹시 호기심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한 마음 상태에서는 호기심이 잘 생겨나지 않아요. 호기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을 잠깐이라도 잊게 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한 사람도 잠깐은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없어질 정도로 우울해지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궁금해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Q. 낯선 것을 선택하고 시도할 때 주저함이 없는 편인가요? 두렵고 낯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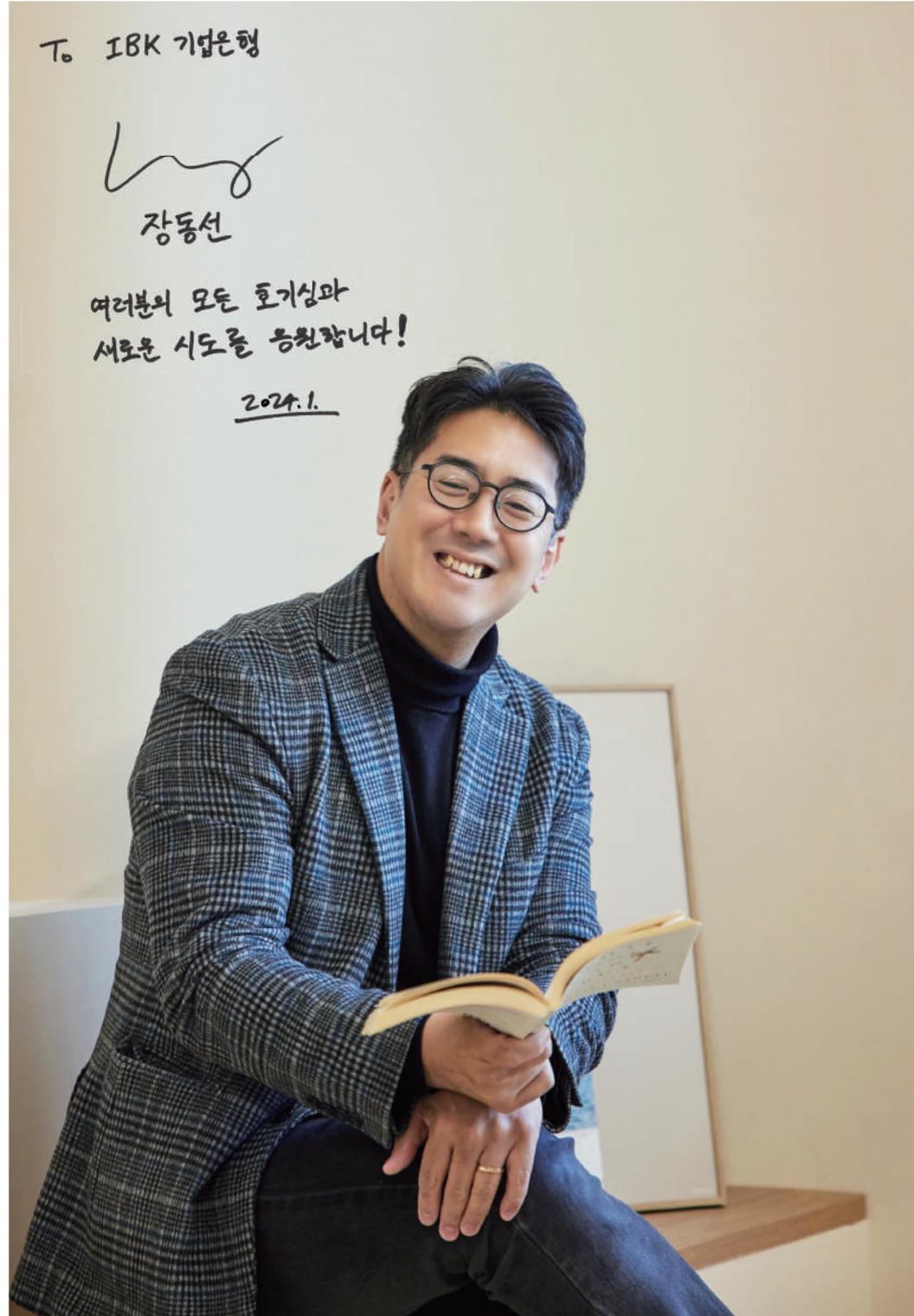
뇌는 어떻게든 제일 편한 길을 찾아요. 가장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해결책을 원합니다.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게으른 개발자가 훌륭한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혁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에 낯선 걸 피하고 싶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선택할 때 자신과의 시간 약속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퇴사가 고민이면 3년은 해보자고 시간을 정하는



인간은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원동력이 호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동선 뇌과학자·과학 커뮤니케이터

호기심으로 인해 실패까지 하게 됐던 경험담이 있는 그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자’는 것을 미션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까지. <알쓸신잡>, <공상가들>, <위털도사> 등 방송 출연과 <장동선의 궁금한 뇌>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많은 이들에게 과학과 함께 호기심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쌓인 데이터로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선택의 상황에서 스스로 시간을 주고, 실행은 미래에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한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Q. 호기심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긍정적인 면과 위험한 면이 있을텐데요.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상 속 훈련법이 있을까요?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기심의 상자를 열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호기심이라면 무조건 피해야겠죠. 호기심의 문을 다양하게 열어보는 건 좋는데 선택할 때 이 문을 열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 문을 열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여는 건 아닌지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2024년 새해 계획이 있다면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사람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으로 서로 궁금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불편한 세상일 수도 있으나 저 또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었기에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거든요. 이러한 방향으로 정신과 의사 등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이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세상인데 그 아픔을 서로 궁금해하고 공유하는 건강한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또한 3년 동안 밀린 책을 출판하는 목표도 갖고 있고요. <with IBK>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BK가 간다!



장동선이 <with IBK> 매거진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았는데 성인이 돼서 호기심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든다면 새해에는 본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호기심은 분명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작은 호기심이 새로운 발견으로 그리고 더 큰 변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모든 호기심과 모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힘, 나의 호기심 지수는?

START



알아야 할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알고 싶은 게 매우 많아 매일매일 새로운가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도전 에너지,
호기심 테스트로 측정해보세요.



100만 볼트의 호기심으로 새로운 하루하루

호기심 많은 당신은 일상이 지루할 틈이 없다. 길가의 꽃들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당신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평범한 생각을 자신만의 것으로 변형시키는 사고방식은 이러한 호기심의 원천이다. 새로운 시각, 충만한 호기심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도전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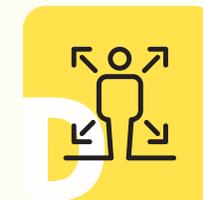
80만 볼트, 같은 것도 다르게 보기

익숙한 것도 이리저리 뜯어 보며 새로운 관점을 찾아낼 줄 아는 당신, 80만 볼트의 호기심을 장착한 창의적 인재다. 탐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끌어내고 있다. 일상에서 생긴 호기심을 '구체화하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흘려보내지 않고, 구체화하며 다듬는다면 호기심의 영역은 더 커질 것이다.



50만 볼트, 탐구심과 게으름 사이 어딘가

행동과 생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는 걸 물론 알고 있지만, 게으름은 조금만 방심해도 발목을 잡고 이것저것 핑거거리를 만들어낸다. 아직 늦지 않았다. 몸이 퍼지기 시작할 때 카운트다운을 세며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보자. 5, 4, 3, 2, 1, 출발!



20만 볼트, 익숙한 게 편한 평범한 당신

목심 있는 당신. 쉽게 질리지 않고 한 가지에 열중하는 점이 장점이지만, 가끔은 일탈을 통해 정신을 환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출퇴근 때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보거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음식 메뉴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작은 호기심이라도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을 깨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소중한 동기와 함께하는 밥 한 끼의 여유

우리들의 행복한 냉·삼 타임

① 본점 편 _ 전주집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맛 좋고, 가성비 좋고, 분위기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마법의 음식, 냉동 삼겹살.
냉삼이야말로 직장인들의
소울푸드다 아니겠는가. IBK인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전주집'에
4명이 모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It's Happy Time!



니 항상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밥 한 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먹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IBK쓰끼 여행에 동행하며 재밌는 토크를 선보일 진행자 손민혁 개그맨과 함께 전주집 4층 루프탑에 자리를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한 냉동 삼겹살과 함께 포슬포슬 부드러운 계란말이, 두툽한 돼지고기가 가득 들어간 뚝배기 김치찌개까지 주문 완료. 식탁은 이미 알록달록, 눈과 입이 즐거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지 않는가. 빨리 익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하다. 가지런히 놓인 불판 위 삼겹살만 바라보고 있는 IBK 4인. 그때 진행자가 냉동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관해 묻자 조현민 대리가 바로 대답한다.

구운 김치는 못 참지



IBK쓰끼, 함께 찾아가는 맛집 지도

2023년을 마무리하며 <with IBK>에서는 IBK인들의 추천 맛집 지도 <IBK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를 발간했다. IBK인 모두가 함께 만든 이 맛집 지도 한 권이면 전국 방방곡곡 맛집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4년 <with IBK>에서는 IBK인과 함께 맛있는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IBK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에 있는 전국의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여행으로 행복한 추억을 쌓는 것. 그 첫 번째 주인공은 IT글로벌개발팀의 직원들이다.

IBK 본점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나오는 오래되고 좁은 골목길. 저기 골목길 끝에서 걸어오는 IT글로벌개발팀의 4인. 을지로를 공부했다는 김혜원 대리가 을지로에 관해 설명을 시작한다.

“을지로가 옛날엔 지금처럼 평지가 아니라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구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을지로를 구

리개라고 불렀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식 이름으로 황금정, 광복 후에는 을지문덕 장군을 기리기 위해 을지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 모두 몰랐지?”
“오~ 을지로 공부 좀 했네? 몇 년 전부터는 힙한 동네라고 힙지라고 부르잖아. 이 골목도 굉장히 힙지로스럽고!”

김연경 대리의 맛장구로 재밌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전주집’이라는 눈에 띄는 초록색 네온사인 간판 앞에 도착했다. 이미 IBK인들 사이에서 냉동 삼겹살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밥 한 끼에서 오는 힐링

함께 일하는 동기들과 밥 한 끼 먹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다는 전소윤 대리는 새 학기의 기분처럼 한껏 설레는 표정이다.

“각자 지점 생활을 하다가 IT글로벌개발 부서로 발령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됐어요. 같은 부서다 보



내가 제일 잘 먹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게 이야기해본 적이 있었을까. IBK트끼를 통해 모인 IBK인들은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유대감이 쌓이고, 소중한 인연과 함께 만든 행복한 추억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소중한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IBK인들 모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IBK인이 만든 소중한 맛집 지도에 있는 맛집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업무로 바쁘겠지만 다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국인의 힘은 밥심! K-직장인의 힘도 밥심에서 나온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잘 챙겨 먹어야 일도 더 잘하게 되는 법. 어느새 가득했던 음식은 바닥을 보이고, 다시 업무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함께 밥심을 얻고 돌아가는 김연경, 김혜원, 조현민, 전소윤 대리. “잘 먹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기분 좋은 배부름이 느껴졌다.

어서 찍어요! 침 고여요.

“구워주는 사람이 구워주는 대로 불평 없이 먹는 것이요!”

조현민 대리의 재치 있는 대답에 모두 웃으며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어느새 맛있게 익은 고기 한 점과 밥 한 숟갈, 쌈장, 마늘, 노른자가 섞여 고소하고 새콤한 파채 한 조각을 가득 올려 야무지게 싼 쌈을 입안 가득 넣는다. 완벽한 하모니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뜨끈한 김치찌개 한 숟갈. 이보다 더 완벽한 식사는 없을 것 같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 K-직장인들에게 직원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여유는 왠지 모르게 큰 힐링이 되는 것 같다.

K-직장인의 힘은 밥심!

서로의 근황, 고민, 직장인들의 애환, 회식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식사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보는 사이지만 서로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앞으로

‘IBK트끼’에 함께 한 소감 한마디!

IT글로벌개발팀 김혜원 대리

IBK트끼를 참여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리고 IBK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 덕분에 점심 메뉴 고민을 해결한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ㅎㅎ!

IT글로벌개발팀 김연경 대리

IBK트끼의 첫 시작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부서라서 매일 얼굴을 보지만 다 같이 시간을 맞춰 점심을 먹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IT글로벌개발팀 조현민 대리

전국 IBK인들에게 추천받은 검증된 맛집에서 함께하고 싶은 동료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IT글로벌개발팀 전소윤 대리

함께 식사한 진행자님 덕분에 재밌는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맛집을 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주집

🍴 목삼겹살, 계란말이, 김치뚝배기

📍 서울 중구 수표로 48-18

☎ 02-2268-6631

사진 왼쪽부터 김혜원, 김연경, 조현민, 전소윤 대리

천사대교 건너 어떤 섬이 나올까? 신안 5섬 여행

전남 신안은 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이 신안군 바다에 흩어져 있다. 약 1,004개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 신안’으로 부른다. 2019년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신안의 섬을 찾아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편해졌다. 천사대교는 신안군청이 자리한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며, 대교 건너 연도교로 이어진 자은도, 암태도, 반월도, 박지도 등을 둘러보자.

Shinan-Gun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신안군 섬 여행의 들머리는 목포다. 목포에서 압해도교를 건너면 압해도가 나오고, 서쪽 끝자락으로 가면 비로소 천사대교가 나온다. 무려 7.22km 길이의 천사대교는 차로 약 8분쯤 달려야 압태도에 들어선다. 다리를 건너는 시간은 8분으로 제법 길다. 그러나 배를 타고 다니던 지난날에는 목포에서 1시간 40분, 압해도 송공항에서 30분이 걸렸다. 심지어 안개나 바람이 심하면 100일쯤 뱃길이 끊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섬사람들에게 천사대교는 그야말로 천사의 선물이다. 천사대교를 건너기 직전 압해도의 1004섬 분재정원에 먼저 들르는 게 순서다. 이곳은 분재 특화 정원이자 수목원이고 미술관이다. 2024년 1월 1일까지 애기동백꽃으로 뒤덮인 ‘겨울꽃축제’의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인공 눈을 만들어 동백에 뿌리는데, 흰 눈을 머금은 붉은 동백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기에 그만이다. 축제가 끝나도 애기동백은 1월 내내 한창이다.

동백꽃을 즐긴 다음에는 700여 점의 분재를 둘러보자. 구구절절한 사연을 간직한 분재도 많다. 야외 분재정원을 본 후 온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수종의 우아한 분재에 발길이 멈춘다. 실한 매실이 주렁주렁 열린 매화

분재는 봄에 꽃이 피면 얼마나 향기로운까. 보리수, 소사나무, 마삭줄, 모과, 향나무, 철쭉 등 다양한 분재를 감상하는 맛이 쏠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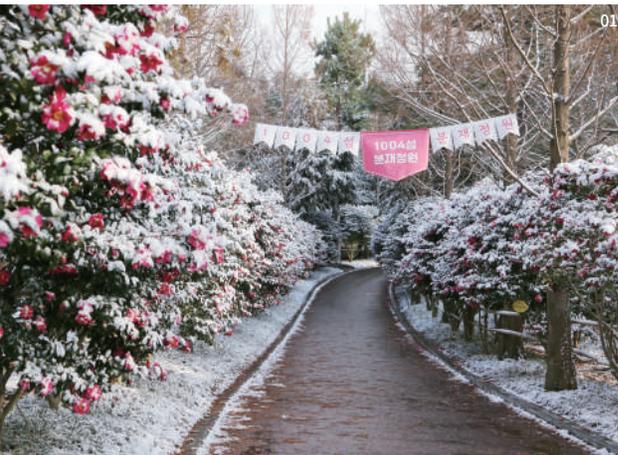
압태도, 1004요트투어와 ‘파마머리 벽화’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1004요트투어는 천사대교 아래 오도항 선착장을 출발해 천사대교를 지나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인 암치도까지 1시간쯤 걸리는 럭셔리 관광 요트다. 바다에서 천사대교의 웅장함과 주변 섬들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1004요트투어는 신안군에서 운영하기에 성인 1명당 요금은 2만 5,000원으로 획기적으로 싸다. 요트 투어가 비싸다는 편견을 깬다.

요트에 오르면 훌륭한 시설과 규모에 절로 흐뭇해진다. 요트가 출항하면 앞쪽으로 가도록 하자. 바닷바람 맞으며 해먹에 앉아 짜릿함을 느껴보고, 마도로스 유니폼을 빌려 선원처럼 요트 곳곳에서 포즈 잡고 기념사진 찍는 것도 마냥 신난다.

요트가 천사대교 아래를 지나면 마치 먼 바다로 향해 떠나는 기분이 든다. 바람(!)처럼 멀리는 못 가고 암치도에서 다시 뱃머리를 돌린다. 암치도에 서식하는 백로와 왜가리를 구경한 뒤엔 요트 뒤편 좌석에서

01 흰 눈과 붉은 동백이 어우러진 1004섬 분재정원(사진 제공 신안군).



02 요트 갑판에 앉아 ‘바다 명’을 즐기는 맛이 일품이다.



03 크고 작은 섬이 밀집해 있어 이국적인 인상을 준다(사진 제공 신안군).

와인을 땀다. 한 잔을 곁들여 해상의 낭만을 즐길 차례가 된 것이다. 와인을 가져가면 와인 잔을 준비해주니 참고하자. 잔을 들고서 바다와 파도와 지나가는 어선, 천사대교에 차례로 건배하며 들어서는 그 맛이란! 풍경은 시나브로 근사해지고, 기분 역시 절정에 치달으면서 1004요트투어는 마무리된다.

압태도 기동삼거리는 북쪽 자은도 가는 길, 남쪽 팔금도 가는 길로 갈린다. 그리고 여기, 이름난 ‘파마머리 벽화’가 있다. 동백나무를 머리 삼아 담벼락에 노부부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파마머리를 배경 삼아 인증샷을 찍는다. 집주인 문병일 씨 부부가 벽화의 실제 모델이다.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해양복합 문화단지

자은도는 천사대교 건너 가장 북쪽에 있다. 여러 명소가 있지만, 그중 이곳의 핵심은 1004뮤지엄파크다. 해상 숲이 아름다운 양산해변에 자리한 해양복합 문화단지, 1004섬 수석미술관과 세계조개박물관, 신안 자연휴양림 등이 자리한다.

수석미술관 옆으로 야외 수석정원이 펼쳐진다. 수석뿐 아니라 다양한 야생화와 맛있는 분재가 가득하다. 거대한 수석 사이에서 사진 찍고 가라고 직원이 귀띔 해주었다. 꽃향기 그윽한 길을 걷다 보면 ‘별유천지비 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란 말이 떠오른다. 딱 그 말처럼 인간 세계가 아니라 낙원에 온 기분이다. 수석미술관에는 원수칠 관장과 기증자들이 기증한 약 1400개의 수석 작품을 전시했다. 기기묘묘한 모양의 수석들을 둘러보면 돌은 꽃과 닮았듯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다. 수석은 돌로 표현한 예술의 세계가 아닐는지. 세계조개박물관에서는 임양수 전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이 40여 년간 원양 어선을 타며 세계의 바다에서 수집한 다양한 조개와 고둥을 전시한다. 무려 1만 1000점의 조개와 고둥이 있어 해양 자연사박물관이라고도 일컬을 만하다. 전시 콘텐츠가 체계적이라 아이들의 자연사 교육에 좋다. 옥색, 청색, 다홍색 등 화려한 조개를 보다 보면 조개 역시 바다의 예술이란 생각이 든다. 수집품인 조개로 채워진 ‘수집가의 방’은 고고학자의 방을 보는 듯 신기하다.



04

05

퍼플섬은 온통 보라 색연필로 칠한 동화 같다. 보라색 하나로 1,004개가 넘는 신안의 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42

1004뮤지엄파크의 자랑은 양산해변을 거느렸다는 점이다. 해송 숲과 양산해변에는 사구가 있다. 해변에서 바라보면 마치 사막처럼 보인다. 1004뮤지엄파크 안에 자연휴양림이 있다. 이곳에 묵으면서 느긋하게 1004뮤지엄파크를 둘러보면 금상첨화다.

퍼플섬에선 보라색 드레스 코드가 필요해

퍼플섬은 온통 보라 색연필로 칠한 동화 같다. 보라색 하나로 1,004개가 넘는 신안의 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다. 퍼플섬은 안좌도와 연결된 반월도와 박지도를 말한다.

퍼플섬의 재미는 보라색 드레스 코드다. 꼭 드레스가 아니라도 여행자가 쓰는 물건 중에 보라색이 있다면 무료입장에 도전해볼 만하다. 동료 여행작가는 보라색 고무장갑을 가져오는 걸 봤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매표소 직원이 한참 고민하더니 허를 내두르며 통과를 외쳤다. 지금껏 이런 입장객은 없었다고 했다.

안좌도 주차장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반월도로 갔다. 섬까지는 보라색 걷기 전용 다리로 연결됐다. 섬과 연결된 도보 전용 다리인데, '걸어서 섬을 건너고 싶다'는 박지도 주민인 김매금 할머니의 소망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서 섬에 들어가는 맛이 삼삼하다. 워낙 작은 섬이라 걸으며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 더욱 좋다.

박지도로 넘어가는 퍼플교를 건너기 전, '어린 왕자' 포토 스폿이 있다. 여기서 한 컷 남기기는 필수다. 박지도는 호롱박 모양의 조형물이 포토존 노릇을 톡톡히 한다. 박지도에서 다시 퍼플교를 건너 안좌도로 나오면 퍼플섬 여정은 마무리된다.

Tip 신안 5섬 여행 가이드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 061-240-8778

암태도 1004요트투어 요금 2만5,000원

☎ 010-9629-1880

* '파마머리 벽화'는 암태도 기동삼거리에 있다.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 070-4272-5611

신안 퍼플섬(반월도·박지도) 요금 5,000원

* 보라색 의상, 액세서리, 신발, 우산, 모자 등 착용

시 입장 무료

교통

자가용을 이용한다. 목포에서 압해대교를 건너 압해도로 들어와 먼저 1004섬 분재정원에 들른다. 그리고 천사대교를 넘는 것이 좋다.

숙소와 맛집

자은도 사월포 횃집(061-271-3233)은 자연산 활어회와 장어탕을 잘하는 곳이다. 암태도 하나로식당(061-271-3400)은 해산물을 곁들인 백반 차림이 푸짐하다. 숙소는 자은도에 많이 있고, 라마다프라자호텔 & 씨원리조트(061-988-8888), 나무늘보펜션(010-9132-5459)을 추천한다.

04 기동삼거리에 자리한 '파마머리 벽화' 속 부부의 모습에 웃음짓게 된다.

05 반월도와 박지도를 연결하는 퍼플교.

06 반월도의 '어린 왕자' 조형물.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06

지중해와 맞닿은 알렉산더의 도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의 꽃’으로 사랑받던 도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고, 클레오파트라 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고도는 북아프리카 대륙의 풍취를 함께 간직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파로스 섬 등대의 흔적과 기원전 세워졌던 최대 도서관의 사연이 영웅담 위에 화려하게 덧씌워진다.

*Alexandria,
Egypt*



지중해와 맞닿은 오래된 도시의 풍취는 일상 속에서 한 템포쯤 더디 흐른다.

01

01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뒤엉킨듯한 알렉산드리아 전경

클레오파트라와 삶이 깃든 옛 수도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의 길이는 수천km에 달한다. 사막 위 누비아인의 삶이 녹아난 아스완, 파라오의 무덤이 웅크린 룩소르를 거친 강줄기는 카이로를 경유해 지중해로 흘러든다. 바다와 만나는 비옥한 델타 지대 끝자락에 알렉산드리아는 ‘섬’처럼 드리워져 있다. 해변 도시는 카이로 이전에 이미 천 년 동안 이집트의 찬란한 수도였다.

황량한 사막과 피라미드의 이집트가 익숙했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고즈넉한 포구와 바닷가 정취에 시선이 머문다. 파라오 대신 20대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사연이 도심 골목을 맴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 이집트에 입성한 뒤 본인의 이름을 딴 3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웠다. 그중 가장 먼저 정복의 단초를 마련

하고,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은 도시가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다. 알렉산더는 파로스 섬 연안의 바위투성이 땅에 델타 지역과 바다를 향한 교두보인 항구를 건설했다.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의 축이었다. 유럽,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와 뱃길이 이 도시에서 교차했으며 상아, 향료 등 갖가지 물건이 거래됐다. 지중해와 접한 세계적인 무역항에서는 문화, 예술의 교류 또한 빈번했다. 클레오파트라와 파란만장한 삶과 죽음도 알렉산드리아가 주무대였다. 안토니우스 등 로마의 장군들과 연정을 주고받았던 클레오파트라의 스토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세인들의 화젯거리였다. 이시스를 기리는 아스완 신전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나일강을 거슬러 여행 온 흔적이 새겨져 있다.

세계 불가사의 등대와 최대 도서관

독일의 시인 릴케는 줄곧 이집트를 연모했다.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나일강 전역을 수년간 여행하며 찬미의 시와 편지를 남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집트에서 맛닥뜨린 황홀한 체험을, 삶이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뀐 ‘분수령’으로 적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해변에는 카이트베이 요새가 수많은 예술가와 상인, 철학자가 드나들던 지중해를 바라보며 서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섬의 등대가 있던 자리에 요새가 세워졌다. 15세기에 축조되고 재건된 요새 자체로도 의미가 큰데, 요새의 일부는 기원전 3세기 무렵 건설된 것으로 부서진 등대의 석재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파로스 섬 등대의 높이는 135m로, 등대 꼭대기를 장식했던 이시스 여신상과 클레오파트라 궁전의 일부가 바다 밑에서 발견됐다.

도심 곳곳에서 알현하는 유적들은 애뜻하다.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던 술한 유적은 지중해의 번덕스런 날씨까지 겹쳐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했다. 기둥 하나만

이 덩그러니 남은 폼페이와 더불어 지하 무덤인 카타콤, 원형 극장 등이 그레코로만 시대의 흔적을 강변한다. 몬타자 궁전, 나시르 거리의 박물관에도 세월의 온기가 전해진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간직했던 도시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제패의 꿈을 지식의 세계에서 이루려 했으며, 그 뜻을 이어받아 프톨레마이오 2세는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완공했다. 도서관에는 문학, 지리학, 천문학, 의학 등을 총망라하는 70만여 권의 책이 소장돼 있다. 도서관에 속했던 연구 집단 ‘무세이온(mouseion)’은 그리스어로 ‘지식의 전당’을 뜻하는데, 영어 단어 ‘박물관(museum)’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화재로 인해 건물과 소장된 책이 모두 불타버렸다. 옛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2002년 유네스코의 협력을 받아 과거의 영화를 계승한 새로운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02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를 간직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



02

03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외관.



03



04



05

유적과 영웅담 뒤로 펼쳐지는 어촌 풍경

알렉산드리아에서 느껴지는 도시의 윤곽은 그동안 조우한 이집트와는 사뭇 다르다. 그레코로만 시대의 수도로 융성했던 시기에는 그리스인, 유대인, 이집트인들이 영역을 나눠 공존하며 살았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수도가 카이로로 옮겨진 뒤 쓸쓸한 어촌 마을로 퇴락했던 때도 있었다. 인구 수백만 명인 이집트 '제2의 도시'로 부활한 것은 서구 열강이 주도한 19세기 근대화 열풍이 불면서부터다.

복잡한 이곳 도심 길에는 멀경거리며 트램이 다닌다. 알렉산드리아의 트램은 1860년에 처음 등장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투박하게 단장된 트램은 카타브 거리의 시장(수크) 길을 오가며 옛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시절을 묵묵히 대변한다.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 화려한 잔상 뒤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잔잔하게 투영된다. 포구로 접어들면 고깃배가 드나들고, 꼬마들은 해변에서 물장구를 치며, 사람들은 난간에 기대 해풍을 맞는다. 지중해와 맞닿은 오래된 도시의 풍취는 일상 속에서 한 템포쯤 더디 흐른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선들이 도시의 중심인 오바리 광장 앞바다를 유유자적 오간다. 해안도로를 지나 알 무르시 아불 아바스 모스크는 돛과 첨탑을 드러내며 이곳이 현재 이슬람의 도시임을 보여준다. 도심 골목에는 전통 빵이자 이집트인의 주식인 '에이쉬(aish)'를 즉석에서 구워 파는 가게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다. 왕국의 위용이나 영웅담과는 별개로 지중해 낯선 골목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간다.

04 클레오파트라의 흔적이 담긴 나일강 아스완 신전.

05 트램 노선과 노란 택시가 공존하는 도심가.

06 폼페이의 기둥 등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유적들이 남아 있다.

Tip 알렉산드리아 가이드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와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한 1000여 년간 그레코로만 시대의 수도였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시기를 이어오고 있다. 도시는 카이로, 룩소르 등과 달리 지중해성 기후를 띠며 겨울에는 비가 많은 편이다. 이집트 '제2의 도시'로 통하며, 유럽과 중동의 항공편이 수시로 운행한다. 지중해를 유람하는 대형 크루즈도 정박하는 항구 도시다.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교통수단은 트램이고, 외지인의 출입이 빈번해 노란색 택시들도 도심에서 흔하게 목격된다. 카이트베이 요새, 폼페이 기둥,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등이 필수 방문 코스다.

해산물 요리가 인기라 카이트베이 요새 인근에는 해산물 레스토랑이 다수 분포한다. 레스토랑에서는 생선과 요리법 등을 직접 지정해 주문할 수 있다.



06

올해도 관창을 거야

팔공산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에는 늘 설렘과 바람이 있다. 지금의 마음을 지키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팔공산을 올랐다. 커다란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관봉 정상은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이들로 붐볐다. 정상석 하나 없는 봉우리지만, 새해의 시작에 잘 어울리는 산행이었다.





01

나아가기 위해 돌아보다

며칠 매서운 한파가 옷깃을 여미도록 했는데, 산행 당일 되자 거짓말처럼 표정을 싹 바꾸고 포근해졌다. 산행 경험이 많지 않아도, 겨울 산행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대구와 경북의 진산 팔공산을 찾은 건 ‘울산 큰애기들’로, 산업 도시 울산에서 근무하는 IBK인들이 모였다. 사실 진짜 명칭은 ‘울산 큰애기들과 돌식’다.

새해의 첫 산행이지만, 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루어진 산행이다. 마음이 설레기는 마찬가지.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해를 온몸, 온 마음으로 받아 안기 때문이다. 계다가 이번에 오르는 곳은 ‘갯바위’로 이름난 ‘관봉’ 아닌가.

“여기 돌계단이 엄청납니다. 1365개의 계단을 올라야 갯바위를 볼 수 있대요.”

“오르기만 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니, 쉬엄쉬엄 올라봅시다.”

주차장에서 몸을 풀고 관암사까지는 포장도로를 따라 뚝뚝 나눈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다. 평소 대화라면 일 이야기지만, 걷는 동안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 못 본 새 업그레이드된 이야기가 오간다.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흐른다.

“팔공산 정상은 비로봉이고, 높이는 1,192m입니다. 이번 산행의 최종 목적지는 비로봉이 아니라, 갯바위가 있는 관봉(853m)입니다. 갯바위까지 안전하고 즐



02

겁게 올라 마음에 담은 간절한 소원을 잘 빌고 오도록 합시다.”

돌계단은 관암사에서 시작된다. ‘1365계단’이라는 계단 이름은 ‘1년 365일 동안 올라 정성껏 소원을 빌면 하나는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지어졌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이곳을 찾기는 어려우니, 산에 한 번 오르는 정성으로 한 계단을 오르면 마음이 닿지 않을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정성일 테니. 한 걸음, 한 걸음 갯바위를 향해 오른다. 숨이 턱까지 찰 정도가 되면 기가 막히게 심터가 나타나곤 하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 큰애기들’의 바람

그동안 산행 모임의 이름은 없었다. 관봉 산행을 계기로 이름을 짓자는 의견에 맨 처음 나온 이름이 바로 ‘울산 큰애기’였다.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의 근무 지역



01 산행 전에는 준비운동 필수!

02 해맑게 웃고 있는 여장부들

03 오늘의 등산 코스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04 자, 이제 시작이야!



04

은 울산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의 브랜드가 ‘울산큰애기’, 브랜드의 시작에는 1969년 발표된 김상희의 노래 ‘울산 큰 애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동명의 신민요가 있을 만큼 널리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큰애기’는 본래 맡여느리를 뜻하며, 미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뭔가에 쫓겨서 지냈던 것 같은데, 운동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매니저님 덕분이죠.”(정신옥 대리)

“새해에 아이가 고3이에요. 뒷바라지를 잘할 거고요. 제 삶과 일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낼 겁니다. 열심히 웃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산행할 계획입니다.”(정영미 경비원)

“정효진 대리 부부가 연애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좋은 동료들과 함께 산행하니 행복하네요.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IBK에서 기회를 주었고, 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에 인사하고 싶었어요. 2024년 한 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서지향 대리)

“딸아이가 축구를 해요. 이번에 스카우트돼서 울산의 중학교로 옮겼고, 저 역시 울산지점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따뜻하게 맞아준 직원들이 참 고마워요. 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해요.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김명진 대리)

좋은 일은 널리, 널리

참고로, 김명진 대리의 딸이 축구선수로 있는 현대청운중학교는 2023 춘계여자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했다. 산을 오르는 속내의 고민과 희망은 다른 듯싶지만 서로 비슷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는 행복을 향하고 있었다. 관봉의 석조여래불 마음에도 그 바람이 전해졌을까.

“아내는 저에게 사랑과 웃음을 주는 에너지원입니다. 육아로 힘들 텐데, 더 아끼고 더 사랑하겠습니다.”(권기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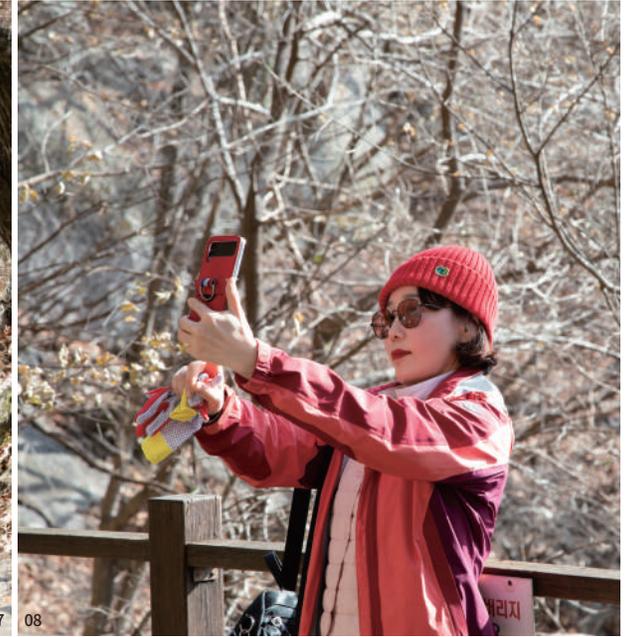
05 기운차게 파이팅하며 오르는 중

06 잠시 쉬어가는 것도 미덕, 근데 너무 편해보인다

07 벌써 산 중턱이지만 아직 거뜰하다

08 잠시 쉬며 멋지게 셀카 한 장 남겨볼까?

09 산등성이와 하늘이 만들어내는 절경





10

“남편은 ‘로토(로또)’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웃음)… 늘 든든하게 지켜주니 고맙죠. 새해에도 그이에게 더 많은 웃음을 주도록 연구하겠습니다.”(정효진 대리)
 맞지 않다기엔 부부의 웃음은 시종 유쾌했고, 맞춰 신은 운동화에선 단내가 풍겼다. 혹 정효진 대리의 에너지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길.

반짝반짝 빛나는

여래불 앞으로 너른 마당바위가 펼쳐져 있었다.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여 갯바위 여래불을 향해 소원을 빌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여래불은 약사여래불이 맞다는 설이 있고,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대수인가. 고되게 올라 절실하게 비는 마음보다 중요할까(공식적으로 보물 제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있으니, 약사여래는 아니라는 설에 무게가 실린다).

매일 맞닥뜨리고 스치는 사람들이 귀한 인연임을 안다면, 깨달음에 가까이 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1



12



13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라 했던가. 벗어나고픈 업무와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를 알고, 매일 맞닥뜨리고 스치는 사람들이 귀한 인연임을 안다면, 깨달음에 가까이 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끌어당기고 주저앉히는 것만 같던 술한 돌계단은 어느덧 인자한 여래좌상 앞으로, 하늘에 닿을 듯한 봉우리로, 바람 시원하고 전망 좋은 능선으로 발길을 이끈다.
 이른바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고구려 고분벽화 강서대묘의 청룡도를 본 적 있는가. 포효하는 입에서는 붉은 기운이 솟구치고, 굽이치는 몸통에서는 도약의 몸짓이 전해진다.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청룡의 해를 보내시기를, 저 관봉에서 바랐다.

- 10 종이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멋스럽다.
- 11 정상에 있는 절에서 한 컷. 이곳에 여래불이 있다.
- 12 하늘을 등에 지고 있는 여래불의 모습.
- 13 2024년에는 소원성취하소서!

팔공산 INFO



- 주소** 경북 영천시 신녕면
- 입산 시간** 연중무휴
- 코스** 갯바위 주차장-관암사-갯바위(2.7km)
- 문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880-8300

※ 2024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으며, 국립공원공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등산로 구간별 난이도



계획과 소망 가득한
한 해

손맛 담긴
나만의 달력

삐뚤삐뚤 잘 쓰지는 못해도, 손글씨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참 매력적이다. 손글씨에 집중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은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내고자 하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캘리그라피에 마음을 담은 탁상 달력을 만든 시간으로 떠나보자.





끈끈하고 돈독한 다섯 명, 입행 동기의 특별한 시간

겨울비 내리는 평일 저녁, 다섯 명의 IBK인들이 을지로에 자리한 한 스튜디오에 모였다. IT디지털개발부 김나정, 임범모 대리, IT금융개발부 김남희 대리, IT시스템운영부 신재문 대리, 빅데이터센터 이훈은 과장이 호기심과 설렘을 반반씩 나눠 가진 표정을 하고서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테이블 위에는 붓펜과 하얀 여백의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들은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2024년 탁상 달력을 손수 만들어보기로 했다.

“2023년에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시작하자는 의미로 함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로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IBK버킷리스트’ 덕분에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달력을 만들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분방하고 멋스러운 글씨체인

캘리그래피는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손글씨로 쓴 광고, 영화, 상품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돼 왔고, 손글씨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이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배우기도 한다. 강사가 캘리그래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간단히 설명했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으로 영화 포스터, 책 표지, 광고 등에서 다양하게 선보여지고 있어요. 먹과 붓 또는 펜을 이용해 글씨를 쓴다는 점에서 서예와 비슷하지만 도구의 느낌, 글씨체, 쓰는 이의 개성 등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서예와는 또 다른 자유로운 글씨 디자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캘리그래피에 대한 감을 익혀나갔다. ‘캘리그래피’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만,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다는 이들이 도전에 나섰다.

글씨 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손맛’을 느끼다

곧바로 실습으로 이어졌다. 각자의 자리에 놓인 종이와 붓펜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수업은 가장 기초 단계인 선긋기부터 시작됐다. 펜과 점점 친해지는 시간이다.

“종이에 직선, 곡선, 굵은 선, 가는 선, 물결선 등을 그려보면서 펜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선을 많이 연습하면 글씨에 여러모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붓펜을 불편 잡듯이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힘을 세게 쥐면 붓이 휘므로 적당한 힘으로 조절해서 써야 합니다.”

펜의 감각을 익히면서 선을 연습한 후에는 단어를 써보는 과정으로 넘어갔다. 강사가 준비해 온 유인물에는 캘리그래피로 된 다양한 단어가 쓰여 있었다. 강사는 “보고 쓰는 ‘임서’의 과정을 배운 후 점차적으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글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붓과 종이에서 집중한 채 단어를 썼다. 그리고 이내 다들 고개를 가웃가웃했다. 신재문 대리가 “앗!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라며 멋쩍게 웃었다. 나머지 네 사람이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마자 ‘와~’ 하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봄날’이라는 글자에서는 금방이라도 예쁜 봄꽃들이 피어날 것 같았고, ‘구름’이라는 단어는 몽실몽실한 하얀 구름을 닮아 있었다. 강사의 펜은 마치 종이 위에서 가볍고 부드럽게 춤을 추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봄날’이라는 글자에서는 금방이라도 예쁜 봄꽃들이 피어날 것 같았고, ‘구름’이라는 단어는 몽실몽실한 하얀 구름을 닮아 있었다.





서툴지만, 내 손끝에서 탄생한 캘리그래피 달력

오늘의 달력 만들기 미션은 ‘나에게 주는 응원과 다짐의 메시지’로 총 열두 달을 완성해보기로 했다. 다섯 사람이 인화해온 ‘추억의 사진’도 꺼내 놓았다. 몇 년 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사진을 보며 잠시 옛 추억에 젖기도 했다, 달력 한 장, 한 장에 각자의 소망과 바람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홍은 과장은 아내와 함께 축하할 기념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을 기록했고, 김남희 대리는 반려견 ‘치코’와의 이야기, 그리고 동기들과의 추억을 달력에 담았다. 김나정 대리는 매달 이루고 싶은 일과 계획을 써내려갔다. 그녀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운동으로 건강해지기로 했다. 신재문 대리는 캘리그래피에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 임범모 대리는 사진과 그림으로 잔뜩 개성을 더했다.

어느덧 두 시간이 넘는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보내고 진심과 정성이 녹아든 손글씨와 동기들과의 추억이 담긴 열 두 달의 달력이 완성되었다. 다섯 사람의 얼굴에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샘솟는 듯 보였다.

강사는 “캘리그래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성을 담은 글씨’라고 합니다.”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잘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일단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이들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다시 종이와 펜에 집중했다.

다음 순서는 문장 쓰기. 몰입과 집중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나정 대리가 “글자들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써질 뿐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강사에게 SOS를 요청했다. 강사의 펜에 다시 한번 모두가 집중했다. 캘리그래피는 두 글자 이상의 글자를 쓸 때 한 덩어리로 보여지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자의 크기, 각도, 획의 굵기, 삐침 정도, 먹의 농담을 변형시키면 무한한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강사의 설명과 더불어 계속된 연습 덕분에 처음 펜을 잡았을 때보다 글자들이 훨씬 ‘캘리그래피답게’ 보였다. 다섯 사람은 “오랜만에 느끼는 손맛”이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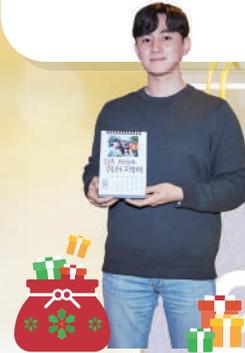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글씨를 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힐링이 됐어요. 솔직히 캘리그래피답게 쓰는 건 어려웠는데,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2024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성을 담아 쓰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추억 하나가 더 생긴 듯해 행복합니다.



IT디지털개발부 김나정 대리

작업하는 동안 초등학교 시절 미술학원 다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첫 문장을 써보고 마음먹은 대로 써지지 않아서 최대한 캘리그래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스스로 흐뭇했습니다. 2024년도 저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면 좋겠고요!



IT시스템운영부 신재문 대리

처음 사용해 보는 붓펜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의 설명 덕분에 차차 적응해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도 만족스럽게 나와서 뿌듯하고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다양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한 일이 제가 바라는 대로 손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만들면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빅데이터센터 이홍은 과장

캘리그래피를 이용해 달력을 만든다고 들었을 때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자에 마음을 담아 소망을 적어 내려갈 때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기들과의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기분도 들었고요. 한 해 달력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2024년은 지난해보다 훨씬 뜻깊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디지털개발부 임범모 대리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직원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아요. 2024년 한 해도 무탈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탈하고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4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IT금융개발부 김남희 대리

음악이 있어 즐거은 인생!

밴드동호회 블루체인지 & 조기경보

- 1. 김해진영지점 박동규 팀장(베이스기타)
- 2. 자금운용부 김보람 차장(키보드)
- 3. 리스크총괄부 박진선 팀장(베이스기타)
- 4. 인프라금융부 이치선 팀장(일렉트릭기타)
- 5. 강동구청역지점 최승국 VM팀장(보컬)
- 6. 인재개발부 홍은희 차장(보컬)
- 7. 신탁부 김종률 팀장(드럼)
- 8. 평촌IT지점 이효은 과장(보컬)
- 9. IT기획부 박희진 차장(키보드)
- 10. 강북지역본부 조주원 대리(키보드)
- 11. 강남대로지점 이동규 팀장(보컬)
- 12. 청계8가지점 전상현 팀장(드럼)
- 13. 경영관리부 김정순 차장(일렉트릭기타)
- 14. 감사부 최종완 팀장(일렉트릭기타)

IBK에는 10년이 훌쩍 넘은 역사 깊은 밴드동호회가 2개나 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지난 2023년 12월 행복한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 두 밴드를 소개한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자.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1. 마이데이터사업팀 윤지상 대리(베이스기타)
- 2. 영업부 황조운 과장(보컬)
- 3. 수원고색지점 박준태 대리(보컬)
- 4. 시화공단지점 김진선 대리(보컬)
- 5. 춘천지점 최현수 차장(보컬)
- 6. 시화옥구지점 김태호 차장(일렉트릭기타)
- 7. 시흥지점 채세현 과장(키보드)
- 8. 연금업무지원센터 박지훈 차장(일렉트릭기타)
- 9. 디지털혁신부 김대환 대리(일렉트릭기타)
- 10. 구로디지털지점 구남호 과장(드럼)
- 11. 반월중앙지점 박경현 대리(일렉트릭기타)
- 12. 인재개발부 이혜수 과장(키보드)



블루체인지



조기경보

블루체인지

Q.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블루체인지는 당시 IBK기업은행의 파란 하늘 이미지에서 따온 Blue와 '변화'를 뜻하는 Change를 조합해 만든 밴드명입니다. 2009년 6월 행내 게시판 및 이메일 홍보로 처음 만나게 된 우리 밴드는 2010년 첫 정기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0회의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2023년 공연을 펼친 구성원은 14명인데 지금은 육아와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한 직원들이 있어 총 인원은 다소 가변적입니다.

Q. 동호회의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안타깝게도 밴드에서 악기나 노래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 지원 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동료는 처음 동호회에 들어올 때 자체적으로 베이스를 구입한 뒤 학원을 다니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직장인이라 평소 연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들 한 가정의 아빠나 엄마가 되어서 그나마 가족들의 눈치를 피할 수 있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 연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오전 9시부터 12~1시까지 연습을 하고 바로 집으로 복귀하죠. 언젠가 "왜 집에 있느냐, 주말인데 밖에 나가다 와라"하는 시간이 오면 주말 오후에 천천히 모여 끝나고 맥주도 한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Q.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A. 직장인 밴드이고 많은 연습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지만 14년 동안 함께 공연을 해온 동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직장 동료 그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 밴드 활동 덕분에 애사심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IBK 식구이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수하더라



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환호해주었기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밴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A. 기업은행 창립 54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에 연예인 대신 초대되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송해 선생님과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해 그동안 해온 공연 가운데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관객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했습니다. <기은찬가>를 시작으로 5~6곡의 무대를 선배님들과 주요 고객님들 앞에서, 그것도 본점 15층 대강당 무대에서 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Q. 2023년 연말 콘서트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는?

A.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5년 만에 개최하게 된 정기 공연입니다. 다시 연습실에 모여 합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다시 한 번 멋진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6~7월 중 썸머

페스티벌 형태로 무대를 꾸며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합주할 시간이 부족해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초대되었나요?

A. 우리 밴드 구성원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 및 선후배,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Q.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주요 곡과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A. 각 멤버들이 하고 싶은 곡을 하나씩, 보컬들은 2곡씩 추천해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곡과 잘할 수 있는 곡이 달라서 중간에 곡이 수정되기도 하고 보컬이나 세션이 바뀌기도 했죠. 다음 공연에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노래방 1위 노래', '연도별 1위 노래' 등으로 전체적인 구성과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Q.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퇴사 후에도 Blue Change라는 밴드가 IBK기업은행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꿈입니다. 음악을 잘해야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은 직원 분들도 많이 지원해서 Blue Change 2기, 3기, 4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 멤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하고 언젠가 가족들 눈치 안보고 환영받으며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웃음)



Q. 음악에 관심이 있으나 취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열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기 연주도 노래도 일단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언론에서 한국인 남성의 버킷리스트에 꼭 등장하는 항목이 '밴드 공연'이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경보



Q.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2012년도 하반기 입행동기 밴드로 시작한 동호회입니다. 조기경보라는 이름은 첫 공연으로 신입행원 합숙면접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사회자가 밴드 이름을 물어보셔서 급조한 이름입니다. 그때는 조기경보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어감이 일기예보 같은 느낌이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후회 중이지만 바꾸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웃음) 이후 소개를 통해 하나둘 멤버가 추가되면서 지금은 20명 정도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곡을 연주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건은 없지만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 지원하시는 분의 녹음된 노래를 들어보고 멤버들과 함께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직장인이라 평소 연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보통 공연준비를 시작하면 회의를 통해 선곡한 후에 주중에는 각자 개인 연습을 하고 주말에 모여서 합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멤버가 다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번 가능한 멤버만이라도 모여서 연습하려고 해요.

Q. 동호회의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기 같은 경우는 쉬운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악기를 배우다 보면 중간



Q.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A. 매번 연습이 기다려질 정도로 큰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또 모든 동호회가 그렇겠지만 회사 내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직급을 떠나서 함께하는 멤버들의 유대가 있으니 소속감도 들고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A. 2022년 12월, 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단독공연을 열었어요. 그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부담도 되었지만 관객으로 오셨던 직원분들께서 즐거웠다는 후기와 응원을 많이 전해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2023년 연말 콘서트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는?

A. 밴드는 결국 공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음악동호회든 연습했던 것을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테니까요. 저희도 두 번째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인 만큼 작년에 아쉬웠던 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했구요. 회사 동호회 밴드 공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직원분들이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초대되었나요?

A. 멤버들이 아는 모든 직원들은 초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초대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IBK 직원들이 찾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주요 곡과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A. 사실 특정 주요 곡을 뽑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곡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단독 콘서트인 만큼 <말리꽃> 같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발라드부터 힙합, 락,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선곡했어요. 사실 공연 준비의 절반 이상은 선곡인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하고 싶은 곡들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관객 입장에서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무대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선곡하면서 매번 멤버들과 끝날 것 같지 않은 회의를 했던 것이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Q.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도 소속된 멤버들이 정말 즐거운 취미생활로 밴드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직원분들이 기억할 만한 공연을 만드는 것이 항상 목표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직접 동호회에서 만든 자작곡으로 직장인 밴드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Q. 음악에 관심이 있으나 취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음악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취미라고 생각해요. 매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원하면 즐길 수 있는 취미인 만큼 어렵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anuary in History

1월에 일어난 이야기



Big Issue

1월, 세계 각국에선
또 어떤 일이?
한 줄로 보는
그날의 이슈

- 2일 1959년 소련의 달 탐사 로켓이자 최초의 달 탐사선 '루나 1호' 발사 성공
- 4일 미얀마(구 버마) 독립
- 7일 미국, 달 탐사선 '서베이어 7호' 발사
- 12일 1923년 의열단 단원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 20일 1841년 영국, 홍콩 점령
- 24일 1984년 애플컴퓨터에서 최초의 매킨토시 출시
- 25일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 올림픽 개막
- 28일 1958년 덴마크 레고그룹, 레고 특허 출원
- 31일 프랑스 풍피두 센터 개관, 미국 인공위성 제1호 익스플로러 발사

01day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 선언문 발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노예해방선언을 공표했다. 당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포함한 그의 명연설문이 지금껏 회자된다. 노예해방을 외친 그는 피부색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한 인간의 가치, 시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다가 열혈 남부 지지자에 의해 극장에서 암살됐다. 1865년 남부군의 항복을 받은 지 11일이 지났을 때였다.

10day

'조선어학회'의 탄생

한글학자 주시경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1908년 학술 모임 '국어연구학회'를 창설했는데, 국어 연구와 발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민간 학술 단체인 조선어학회의 전신이다. 이후 1919년 '조선어연구회'로, 1931년 '조선어학회'로 거듭났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한글 맞춤법 통일을 비롯해 표준말 사정, 외래어 표기법 등은 조선어학회 덕분에 제정될 수 있었다.

18day

영국 탐험가 스콧, 남극점 도달

1912년 영국 남극탐험대의 스콧 대장과 4명의 대원은 케이프 에반스를 출발한 지 81일 만에 남극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남극점에는 한달 여 전에 다녀간 아문젠의 노르웨이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첫 번째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 운명을 달리했지만, 스콧은 영국 신사다운 모습으로 용감하게 최후를 맞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영웅이 됐다.

22day

앙코르와트, 세상에 드러나다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오는 500년 넘도록 정글에 파묻혀 있던 앙코르와트를 발견했다. 캄보디아 북서부의 시엠리아프(시엠립)에 위치했으며, 400km 넘는 면적에 걸쳐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유적이 남아 있다. 약 30년에 걸쳐 축조된 종교 건축물로, 힌두교의 3대 신 '비슈누'에게 봉헌되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날 대한민국에선?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WTO(세계무역기구)가 정식 출범했으며, 출범과 함께 한국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날 영국에선?

1863년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런던 지하철이 개통됐다.

이날 독일에선?

1871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선포와 함께 빌헬름 1세가 독일 황제에 등극했다.

이날 러시아에선?

1905년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이 '피의 일요일' 이후 지지부진하던 혁명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

새해엔 이런 습관으로 '슬로 에이징' 출퇴근길에 행기는 건강 리추얼

하가 바뀌었고 결국 한 살을 더 먹었다.
그럼에도 오늘의 내가 가장 젊다는 것.
한시라도 젊은 지금부터 실천해야 하는,
가능한 천천히 잘 늙어가도록 도움
건강을 위한 규칙 몇 가지.



☑ 굿모닝, 물 한 잔

기상 직후는 탈수 상태라고 해도 될 만큼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꽤 빠져 나간다. 잠에서 깬 직후 마시는 물은 포만감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체중을 전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약 1.7%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단, 체중계에 오르는 습관이 있다면 아침 공복 상태에 재야 정확하다.



☑ 버스나 지하철에서 틈틈이 자세 잡기

출퇴근길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강 관리법이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을 위해 다음의 자세를 추천한다. 빈자리가 나 앉게 되면 엉덩이는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다리를 꼬지 않은 상태로 목과 허리를 똑바로 편다. 척추와 관절이 받는 압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서 이동할 시 몸의 중심을 잡아 체중의 압력이 양쪽 다리로 고르게 분산되게끔 자세를 잡는다.



☑ 이어폰보다는 헤드셋

응당 출퇴근길엔 음악을 듣거나 그간 못 본 드라마, 영화를 보기 마련이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이어폰을 올해부터 귀 건강을 위해 참으면 어떨까. 헤드셋, 헤드폰으로 대신하자. 이어폰은 헤드셋보다 귓속 압력을 더 높여 고막에 더 큰 부담을 준다. 특히 커널형 이어폰은 외부 공기를 차단해 귓속을 습하게 하고 온도를 높여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외이도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 계단 운동량 늘리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운동량을 늘려보자. 사무실 책장에 앉았을 때는 무릎과 발목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긴 업무 시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 특성상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는 필수다. 더불어, 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지 않도록 한다.

참고

'생각만 해도 피곤한 장거리 출퇴근길...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빨간불 켜져', 하이닥, 2023.04.21.
'이어폰과 헤드폰, 뭐가 더 귀 건강에 안 좋을까?', MS투데이, 2023.11.01.

푸드경쟁 극과 극 제로 푸드 vs 탕후루



다이어트 식품으로 하나둘 생겨나던 제로푸드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 건강 관리를 위해 당류를 줄인 제로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 분야에서 Zero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반대로 과일 겔면에 설탕을 입힌 탕후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극과 극의 사회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설탕, 무알콜, 무카페인...

Zero Food Trend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먹거리가 넘쳐나서 문제다. 당뇨를 포함한 각종 성인병과 간질환 등은 모두 알콜과 설탕의 과다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알콜 음료, 무설탕 캔디를 찾기 시작했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카페인 없는 커피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제로 슈가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 관리를 위해 저당 제품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설탕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이 바로 탄산음료다. 탄산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액상과당은 다른 제품에 비해 흡수가 빨라 식후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당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인공 대체당으로는 사카린과 아스파탐, 돌신, 시클라메이트 등이 있고, 천연 대체당으로는 식물 유래 화합물로 설탕의 10,000배의 맛을 낸다고 하는 글리시리진과 스테비오사이드가 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스테비아 방울 토마토’가 바로 스테비오사이드 성분을 이용해 생산한 것이다.

이처럼 제로 슈가는 단순히 건강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현상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2년 이마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탄산음료 매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반면, 대체당을 사용한 탄산음료는 209% 증가했다.



시장을 잠식한 제로 슈가와 건강 관련 이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는 제로 슈가 소주가 있다. 제로 슈가를 표방한 소주 시장에서 히트를 치면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에 질세라 앞다퉈 제로 소주를 출시하기도 했다.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나 하이볼 같은 제품에서도 제로 슈가는 필수가 됐다. 이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도 제로 슈가를 표방하며 새로운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제로 슈가 양념치킨이 출시되기도 했으며, 허쉬에서는 제로 슈가 초콜릿을 출시했다.

이처럼 제로 슈가 열풍이 시장을 점령하자 여러 학계와 마스크업에서는 대체당으로 만들어내는 제로 슈가 제품들이 실제로 설탕에 비해 건강에 좋은 건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에서는 제로 슈가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네거티브 마케팅이라고 꼬집으면서 설탕과 꿀의 당은 흡수 및 분해 속도가 빠른 단순당으로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당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 두통, 현기증과 같은 인지기능 저하, 지방 축적과 같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다만 건강 유해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공 감미료 하루 허용 섭취량(ADI)은 적정량의 0.1~14%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제품 섭취가 늘어나면서 인공 감미료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유행에 따라 무분별하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섭취할 제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소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로 슈가 열풍에 대한 반작용인가? 탕후루 열풍

탕후루는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혀 굳힌 중국식 간식이다. 베이징과 텐진을 포함한 화베이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으로, 최근에는 중화권 전역에서 즐겨 먹고 있다. 이는 국내로 넘어와 SNS를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식이 되었다. 2022년 240곳에 불과했던 탕후루 점포는 2023년 11월 기준 1,000곳을 훌쩍 넘어섰다. 제로 슈가 트렌드가 유행하는 가운데 설탕 범벅인 간식도 유행하는 이상한 현상이다. 종합광고대행사 대홍기획은 2024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모순의 일상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급부상하던 트렌드가 갑자기 꺾이거나 정반대되는 소비 행동이 공존하는 현상이 현재 트렌드의 특징이라는 것. 예를 들어 골프나 오마카세 등 젊은 층이 열광하던 분야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플렉스(과시형 소비)’를 외치던 사람들이 오픈채팅 ‘거지방’에서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관성 없이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소비 행동을 ‘모순의 일상화’라고 정의한 것이다.

제로 슈가와 탕후루처럼 우리 사회가 점차 양극단으로 벌어질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세대 갈등이나 성별 갈등처럼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사서오경에 속하는 <중용>에서는 부족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도(道)를 택하라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사유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금융 트렌드의 새로운 혁신 삼정동지점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천 공업 지역에 위치한 삼정동지점은 공단형 점포이자, 인근의 중소기업과 MZ세대 대표들에게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점포다. 제조, 물류, 도소매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IBK기업은행다운 금융 트렌드를 선도해왔다. 청룡의 기운을 따라, 그 커세를 몰아 삼정동지점은 푸르른 비상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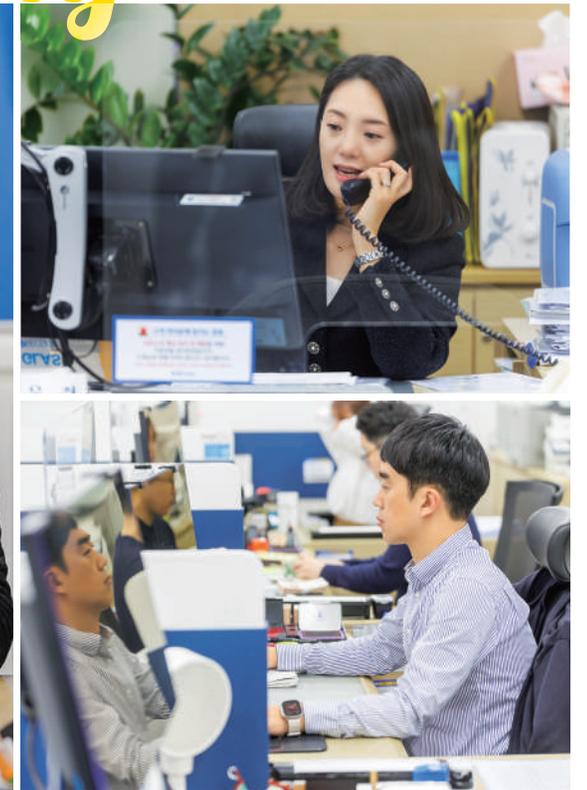


**이토록 다재다능한
삼정동지점**

삼정동지점은 부천시 공업지역에 자리했으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다양한 연령층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형 점포다. 제조, 물류, 도소매에 이르는 공업지역 내 여러 산업군과 거래 관계를 잇고 있는 특화형 점포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공업지역에서는 가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 분업해 신규 사업장을 내는 젊은 대표의 유입이 늘고 있다. 삼정동지점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MZ세대 대표들을 위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

이 젊은 대표 고객들은 막강한 정보력을 토대로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정동지점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응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등 관심 이상의 열정을 쏟는다. 매주 한 차례씩 직원들이 모여 신상품 제규정에 관한 공유 시간을 갖고 있으며, 최신 금융 트렌드에 맞는 응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Versatility



새해엔 그들의 ‘업력’이 더 막강해진다

신규 고객 유치와 IBK기업은행 거래 전속화는 당연한 거니와 기존 거래 고객과의 거래를 유지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2024년 삼정동지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공업지역 내 타행의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업체와의 거래 관계 유지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삼정동지점 직원들은 기존 거래 고객의 이탈 방지를 넘어서서 새해부터는 타행 복수 거래 차주의 당행 점유비 심화를 위해 내달릴 각오를 굳혔다. 실제로 삼정동지점과 기존 거래 고객의 모임인 ‘기삼회’를 확대·활용하고자 계획한 점은 특히나 눈길을 끈다. 기삼회를 통해 고객들의 고충과 불편을 가장 먼저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동지점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업무 노하우를 나누는 특별한 티타임을 갖는다. 그 시간을 통해 소소하게는 깔끔히 서류 정리하는 방법부터 최신 여수신 제규정 정보와 금융 신상품 정보 등에 이르는 다방면의 지식 공유가 이뤄진다. 직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조직의 단결과 연대를 단단히 하는 데 큰 몫을 해낸다는 전언이다. 또 지점 업무에 있어 금융 정보와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CS, 고객 응대 부분일 터다. 삼정동지점 직원들은 월요일마다 CS 시간을 개최하는데, 고객 응대 관련 노하우를 비롯해 내점 고객들의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는 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최신 금융 트렌드에 맞는 응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Sharing





**‘직원’에서 답을 찾아낸 그곳,
그 사람들**

Teamwork

삼정동지점 직원들은 단연코 ‘직원’의 힘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팀워크 부분에선 자신 있다는 의미다. 기업팀, 개인팀 하는 팀 구분이나 상하 직급을 논할 것 없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중을 다해 대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다 보니 삼정동지점이 거둔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실이었던 것. 삼정동지점 직원들에게 회사는 으레 ‘따뜻함’으로 표현되는 곳이다. 내부의 따사로운 기운은 삼정동지점을 찾은 고객에게도 여지없이 전해진다. “고객들이 기분이 좋아진다면 서 자주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저희가 갖는 감정과 기운을 동일하게 느끼는 게 아닐까요?”

직원들로부터 시작해 고객들에게 차츰 전해지는 ‘계속 오고 싶은 곳’이 되겠다는 따뜻하고도 기운찬 에너지와 선순환. 그 덕분에 삼정동지점의 꿈이자 목표 삼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좋은 은행, 좋은 지점’을 머지않아 만나게 될 듯하다.



Mini Interview



직급을 막론한 소통과 대화

오랜 기간 영업 일선에서 경험하며 느낀 건 소통과 배려가 잘되는 지점이 성과까지 좋다는 점입니다. 대화나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유연한 사고가 이뤄지지 않죠. 그런 내부 분위기는 직원들을 만나는 고객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고요. 허물없는 소통을 통해 삼정동지점은 우수한 성과를 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Happy 삼정동으로 오세요

직원이 행복한 영업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업에 몸담은 사람이 많아요. 직원들이 오고 싶은 지점을 만드는 건 지점장의 할 일이며, 목표이자 주안점입니다. 2024년 갑진(甲辰)년에도 직원과 고객 모두 행복한 ‘Happy 삼정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고객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많은 행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삼정동지점 직원들이 표현하는

나에게 2024년은
□□□□□ (이다)



조승찬 과장



기대감 가득

정은경 대리



행복한 시작

김성애 대리



새로운 시작

임채일 지점장



계속ing

이정애 팀장



다 잘될 거야

조건희 팀장



새로운 희망

이정명 대리



채워가는 해

정혜란 대리



해피뉴이어

김태우 대리



성장하는 해

권민중 차장



뉘치는 행복

장운경 과장



쿨한 도전기

홍성원 과장



좋은 일 가득

김민정 대리



화화의 향기

류민혜 대리



갑진 갑진(甲辰)년

안지수 경비원



드라마같은

요리를 더 쉽고 더 맛있게

(주)해마글로벌 김지훈 대표이사
논현역지점 거래 기업



사람이 먹는 음식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 (주)해마글로벌이 ‘품질’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이유다. 40년 가까이 복합조미식품으로 한길을 걸어온 (주)해마를 모기업으로 하는 (주)해마글로벌은 제품의 유통과 수출, 그리고 브랜딩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김지훈 대표가 2016년부터 이끌어오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 K-Food의 진짜 맛을 전하고 싶다는 그를 만났다.



HAEMA GLOBAL

(주)해마글로벌



식품 OEM 기업에서 자체 브랜드 ‘요리여왕’의 기업으로!



(주)해마글로벌은 1986년 설립된 (주)해마가 모기업이다. (주)해마는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37년 동안 각종 조미료 및 소스류 제품을 생산하며 탄탄하게 성장해온 기업이다. ‘꽃계랑’, ‘보크라이스’, ‘게맛살’ 등의 다양한 제품을 OEM으로 생산해 납품하였으며, 현재도 국내 여러 대기업 및 유기농 친환경 마켓과 함께하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주)해마글로벌은 제품의 유통과 수출, 그리고 제품 브랜딩을 책임지고 있다. 2016년부터 (주)해마글로벌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지훈 대표는 (주)해마의 마케팅팀 이사직도 수행하고 있다. “(주)해마는 생산뿐 아니라 직접 연구·개발까지 책임지는 ODM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브랜드 제품은 2014년 출시된 ‘마시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이 브랜드만으로 대기업과 경쟁한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오프라

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체 브랜드로 승부해도 승산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시하나’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요리여왕’이란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요리를 더 쉽고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복합조미식품 브랜드 ‘요리여왕’은 끓는 물에 한 알을 넣기만 하면 맛있는 육수를 만들어주는 ‘알육수(8종)’, 국산 멸치와 다시마의 풍미를 진하고 깔끔하게 살린 ‘멸치육수티백’, 고단백 식품인 황태에 고추장·버터·청양간장·마요 등의 양념을 발라 열풍 건조 시킨 ‘너황태반했어(6종)’ 등의 다채롭고 이색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때마침 국내 캠핑문화의 더 큰 확산과 함께 ‘요리여왕’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고, ‘2023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식품(복합조미식품) 부문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올해가 6년 연속 수상이다.



(주)해마글로벌의 특징

Step. 1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사람이 먹는 식품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철칙으로 제로 품질관리(Zero Quality Control) 지향

Step. 2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 활동을 추구하는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

201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최초 인증 획득 후 고객 만족을 통한 CCM 재인증

Step. 3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소통의 조직 문화

‘일하기 재밌고 즐거운 회사’를 위한 노력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회사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

성장 동력이 되다



(주)해마글로벌이 이처럼 브랜딩에 집중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덕분이다. 김지훈 대표는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 R&D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제품 생산에 있어 통계적 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를 적용하는 반면, 저희는 제로 품질관리(Zero Quality Control)를 지향합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단 1%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건 2004년 발생한 만두소 관련 파동과 2005년 중국산 김치 파동 이후였다. 하지만 (주)해마글로벌은 이미 2002년에 HACCP 인증을 획득했을 만큼 품질에서 매우 엄격하고 철저했다. 가격 경쟁이 극심한 시장에서 품질을 위해서라면 이윤도 포기할 만큼 ‘품질경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2008년에는 중국의 멜라민

파동까지 발생하면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을 때 해마글로벌은 오히려 매출이 매우 상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공급업체를 찾았다면 식품 파동 이후에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곳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 해마글로벌은 매출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재 (주)해마글로벌은 ‘요리여왕’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요리여왕 계정과 네이버 동영상을 통해 요리여왕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알육수 광고 촬영도 마쳤다.

“조미료는 보통 40~50대의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식품이었지만 요리 트렌드의 변화로 다양한 세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힘찬 내일을 열어간다



김지훈 대표는 소통의 조직 문화와 ‘일하기 재밌고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직원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출근할 결심’을 운영 중이다. ‘출근할 결심’에는 직원들의 소소하면서도 재미있는 ‘직딩 라이프’가 솔직하게 담겨 있다.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해마글로벌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회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직원들 스스로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재밌고 즐거워야 회사도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지훈 대표는 (주)해마글로벌의 성장 동력은 품질이라

고 강조한다. 여기서 품질이란 비단 제품의 품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조직의 품질’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현재 저희 제품은 방콕,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주)해마글로벌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품 혁신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이고, 국제적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혁신과 고객 중심 가치 창출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힘찬 행보를 이어 나갈 (주)해마글로벌의 내일을 응원한다.



IBK와 쌓아온 신뢰와 믿음, (주)해마글로벌의 든든한 힘입니다.



Q. 대표이사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저의 경영 철학은 ‘지속가능한 혁신과 품질 우선주의’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품질’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썼고, 제로 품질관리(Zero Quality Control)를 지향해 왔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해마글로벌은 혁신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주)해마가 설립된 1986년부터 시작됐으니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IBK기업은행과 (주)해마글로벌과의 인연은 해외 시장에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하기 위해 금융 솔루션과 자문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주)해마글로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전문 상담을 받으며 저는 매우 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IBK기업은행과는 두터운 신뢰와 믿음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IBK기업은행은 (주)해마글로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해마글로벌 대표이사 김지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승승장구할 (주)해마글로벌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Q. 논현역지점을 소개해주세요.

A. 1976년 개점한 논현역지점은 47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해온 기업 고객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동반성장을 해온 덕분에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두텁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친절한 자세와 섬세한 마음으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논현역지점은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Q. (주)해마글로벌의 비전과 강점은 무엇일까요?

A. (주)해마글로벌의 최대 강점을 꼽으라면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제품’이요! 의식주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어느 것보다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 (주)해마글로벌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해마글로벌이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해마글로벌이 승승장구하는 날이 보다 빨리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논현역지점 임동영 지점장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



연탄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장 ‘박재준 대표’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연탄 사용 가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해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다. 인천분회는 2022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 박재준 대표를 만나 봉사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



인천분회, 연탄 나눔 봉사 활동으로

더욱 뚝뚝 뭉치다!

IBK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는 올겨울 연탄 6천 장을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인천분회 박재준 대표(제일가스 대표이사)는 “회원들이 연탄 1,000장을 직접 나눔 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에는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독거 어르신들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싶어서 2022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재준 대표는 2012년부터 인천분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박재준 대표를 포함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네 명의 회원이 2016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시작한 게 현재 나눔 활동의 싹이 됐다.

“네 명의 회원이 했던 초기 활동은 가족과 함께했습

니다. 아이들과 연탄을 나르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슈퍼마켓에서 초코파이를 사와 아이들에게 건네주셨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따듯하고 고마운 마음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제가 인천분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봉사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전했더니 인천분회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호응해주셨습니다.”

인천분회 회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이 아닌 흙길로 된 비탈을 한참 올라야 당도하는 낡고 오래된 판자촌들이다. 연탄을 나르려면 지게에다 연탄 4~6장을 지고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한다. 작업은 세 개 조로 나뉘어 진행

된다. 지게에 연탄을 올리는 조,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는 조, 지게에서 연탄을 내려서 차곡차곡 쌓는 조가 뚝뚝 뭉쳐 하나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 힘든 일을 함께하고 나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봉사 활동을 끝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시간에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늘 비가 와서 회원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 퍼질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선행이 일어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활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 더 많은 선행이 일어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미래경영자클럽

미래경영자클럽은 창업주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2·3세 경영인들의 모임이다. 차세대를 건인해나갈 2·3세 CEO들이 정보와 지식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총 21개의 분회가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지요.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잘 나가던 기업도 후퇴나 쇠락을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려면 트렌디한 지식과 정보, 경영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경영자클럽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식견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경영자클럽을 위한 양질의 세미나를 통해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박재준 대표는 “미래경영자클럽의 시초가 된 것이 인천분회”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인천지역본부가 부평에 있었던 2000년 초반, 지역본부장님이 2·3세 CEO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취지와 맞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

임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대되면 좋겠다는 IBK기업은행 측의 뜻에 따라 미래경영자클럽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천분회가 미래경영자클럽의 시초가 된 것이지요.”

인천분회는 전국 21개의 분회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현재 약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끈끈하고 돈독한 분위기와 탄탄한 결속력은 인천분회의 가장 큰 자랑이다. 박재준 대표에게 인천분회는 산소 같은 존재다.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8%는 질소가, 2%는 이산화탄소, 수소, 헬륨 등이 차지합니다. 20%밖에 안 되는 산소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천분회가 제게는 산소 같습니다. 인천분회가 제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2 미만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박재준 대표는 앞으로도 인천분회가 지금까지처럼 탄탄한 결속력을 갖고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그는 2024년 12월 예정돼 있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인천분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박재준 대표는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도 전했다.

“2·3세 경영인들은 창업주가 힘들게 이뤄놓은 기업을 잘 이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술한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지냅니다. 또한 창업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기 좋은 소리로 ‘금수저’라며 시샘 반, 부러움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2·3세 경영인들은 책임과 중압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게 현실입니다. 2·3세 경영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래경영자클럽이 2·3세 경영인들

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소통의 장인 미래경영자클럽을 통해 2·3세 경영인들이 실무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경영자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재준 대표는 “인천분회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2·3세 경영인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바람과 각오를 전했다. 앞으로 미래경영자클럽 인천분회의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미래경영자클럽이란?

미래경영자클럽은 창업주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2·3세 경영인들의 모임이다. 머지 않아 경영자가 될 이들이 정보와 지식을 나누면서 교류하는 모임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21개의 분회가 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IBK항공 기업

IBK항공

마포

국내 1위 주택 점검 서비스



홈체크

부동산 매매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주택 점검, 이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더 완벽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homecheck.kr

IBK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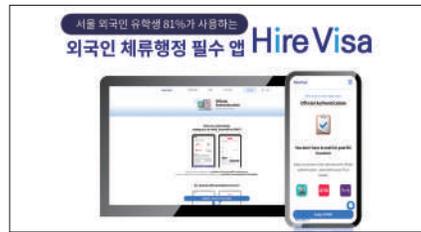
구로

인재 등용의 새로운 문



(주)하이어다이버시티

(주)하이어다이버시티는 외국인 체류행정 앱 '하이어비자'를 기반으로 외국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hirevisa.com

IBK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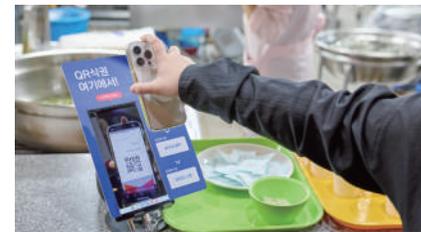
부산

나만의 선불결제 시스템



(주)플렉스데이

(주)플렉스데이는 다양한 업종에 선불카드를 통해 고객 락인 효과 및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모바일 솔루션이다.



flex-day.co.kr

IBK항공

대전

임가공 시장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이비오(주)

이비오(주)는 제조 임가공 시장의 다품종 소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제조 플랫폼이다.



partner.blue-chain.kr

100000



대한민국 주택 점검 서비스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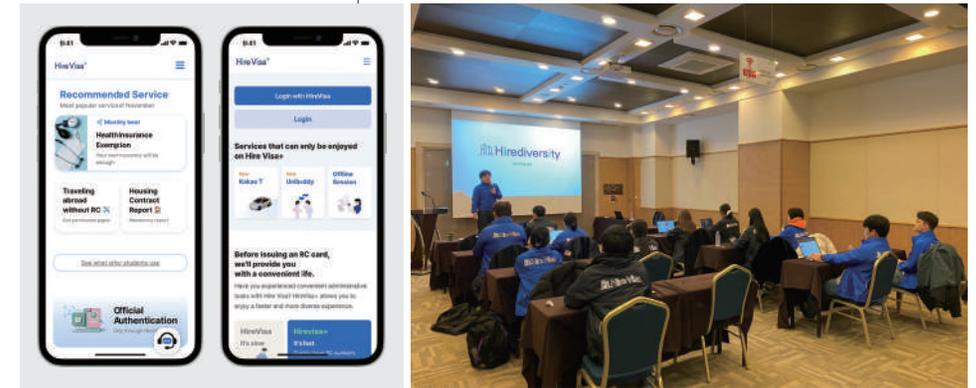
(주)홈체크는 건축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쉽게 말해서 주거·아파트 등 입주 전 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파트 사전점검, 건축 및 토목 시설물의 정기·정밀 안점점검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안전진단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세이프체크, 부동산 거래와 인테리어 분야 주택 점검인 공동주택점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3년 미국의 주택 점검 시장은 8조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신축아파트 관련 분쟁이 늘면서 주택 점검 서비스를 찾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주)홈체크는 건축전문가와 장비를 활용해 새아파트 기본 마감재 상태, 단열, 누수, 공기질 상태 확인을 돕는다. 특히 (주)홈체크는 소비자 감동 지수 5년 연속 1위, 240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누적 점검 수 60,000세대를 넘어서었다. 2023년 12월까지 누적 매출 164억 원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주택 점검 서비스 시장 1위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 우수 인재 플랫폼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행정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 예약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1달, 외국인 등록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쿠팡, 카카오 택시, 토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의료 서비스나 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국내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를 위해서는 외국인 행정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행정 데이터 등록에는 최소 5~9주 정도가 소요된다. (주)하이어다이버시티가 운영하는 앱 '하이어비자'는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앱으로, 전국 62개 대학 부처에 서비스 독점 공급으로 서울 내 외국인 단체 등록자의 81%가 이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외국인 유학생 77,739명 중 하이어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은 62,968명에 달한다. (주)하이어다이버시티는 이렇게 수집된 외국인 인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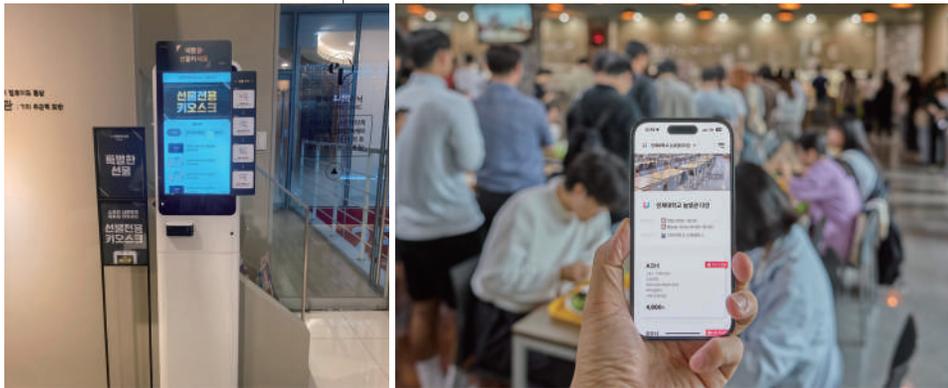
100000

IBK항공 부산

고객을 사로잡는 선결제 솔루션

Flexday

플렉스데이는 매장 마케팅에 필수적인 모바일 선불카드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존 플랫폼들의 수수료 부담과 선불결제 도입방식에 대한 고객불편 등을 개선한 플렉스데이 솔루션은 **매장POS, 키오스크 등 오프라인 인프라와 앱, 웹, E커머스 등 온라인을 연결하는 O2O플랫폼으로, 더 범용적이고, 간편하면서 효율적인 선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우선 매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바일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하여, 스마트오더 혹은 기존 매장POS, 키오스크, 모바일 앱으로 바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플렉스데이에서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기프트콘 및 쿠폰, 회원권 및 시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선불 충전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키즈카페, 커피숍, 음식점, 베이커리, 대학교, 요트투어, 헤어샵, 차량정비소, 네일샵, 공방, 구내식당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AI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기프트콘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결제까지 한 번의 터치만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해 편의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2022년 5월 설립한 플렉스데이는 창업 1년 만에 2023년 월 거래량 6,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IBK항공 대전

쇼핑처럼 쉬운 부품 제조

EVIO

인적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부품 제조시장에서 제조를 진행하려면, 가공업체와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부품 임가공 업체 또한 고객 확보와 사업확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비오(주)는 최근 온라인 부품제조 솔루션인 '블루체인'을 개발했다. **고객이 견적과 가공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부품 가공업체와의 소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이 이 솔루션의 최대 강점이며,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보다 20% 이상 저렴하고, 소량 가공 및 당일 출고까지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한 게 특징이다.** 쉽게 말해 제조업계의 '카카오 택시'라고 할 수 있다. 도면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견적을 확인하고 쇼핑하듯 주문하는 형태다. 도면의 잘못된 부분을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소재와 공정에 따른 다양한 옵션에 대한 견적과 납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도면 검토, 견적요청 및 검토, 발주, 검수, 납품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했다. 이비오(주)는 폭넓은 생산파트너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 외치는 데님은 광부의 작업복이었다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은 청바지를 발명하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자기표현, 단순성, 성적 매력 등 옷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이 그에게는 바로 청바지였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입혔으며 가장 사랑받는 이 옷의 효시는 광부의 작업복이다.



Blue Jeans

천막용 원단에서 광부의 작업복으로

청바지는 사업 실패로 극심한 절망에 빠졌던 청년의 재기를 이끈 놀라운 발명품이다.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는 골드러시를 따라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이민자로, 당시 천막용 천을 만들어 수익을 냈다. 군대용 천막 10만여 개에 이르는 천을 주문받고, 빛을 내 생산설비와 직원을 늘렸다. 밤낮으로 물품을 만들어 납품했으나, 천이 녹색이 아닌 청색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품됐다. 스트라우스는 그대로 빛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러다 탄광촌 광부들이 해진 작업복 바지를 꿰매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애물단지가 된 ‘문제의’ 천막용 청색 천으로 바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출시된 청바지는 대박을 치며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1950년대 무렵 제임스 딘이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뒤로 청바지는 자유, 젊음, 반항을 상징하는 패션 아이콘에 등극했다.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 해결해야 할 것

여전히 많은 브랜드가 시즌마다 새 청바지를 선보인다. 인류학자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청바지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연간 청바지 생산량은 50억 벌에 이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 청바지 시장은 2030년 600억 9000만 달러(약 66조 8561억 원) 규모로, 2023년 국내 청바지 소매 시장 매출은 573억 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4.9%씩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토록 견재한 청바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데님 색을 낼 때 쓰는 화학약품 사용과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요즘은 청바지 업사이클링 클래스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에는 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연구원이 청바지 염색에 쓰는 염료 ‘프러시안 블루’를 활용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과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패션이 엮은 인류경제사, 청바지의 부활’, 이코노텔링, 2023.11.27.
- ‘어떻게 가능해? 청바지, 해양 환경 오염 막는다!’, YTN, 2023.10.31.
- 유튜브 ‘코코보라’, 청바지에 붙어 있는 이 쇠단추의 놀라운 용도’

리벳(Rivet)

옷이 터지지 않도록 박은 구리 단추로, 1873년 특허 출원했다. 주머니 모서리 끝에 구리 단추를 박아 내구성을 높인 것인데, 재단사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뜻도 어감도 예쁜

순우리말 모아보기

순우리말은 우리말 중에서 고유어만을 이르는 말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순우리말 중 어감이나 의미가 좋은 단어들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만큼 순우리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지금,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쁜 순우리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의 부사다. 넉넉하고 푸짐하다는 뜻을 연상시켜 음식점 상호로도 자주 쓰인다. 비슷한 단어로는 ‘가득’, ‘가득히’, ‘그득히’ 등이 있다.

예문 ->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값으로 술국이나 한 쪽배기 **안다미로** 퍼 오너라.

하르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동음이의어다. 1) ‘종이나 피륙 따위가 얇고 성기며 풀기가 없어 매우 보드라운 모양’. 2) ‘한숨 따위를 한없이 몰아쉬는 모양’. 이음동의어로는 ‘호르르’가 있다.

예문 -> 1) 꽃잎이 **하르르** 떨어져 내리다.
2) 몰아치는 일정에 **하르르** 한숨만 내쉬었다.

여우별

‘비나 눈이 오는 날 잠깐 났다가 숨는 별’을 뜻한다. 순우리말에서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들은 주로 여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맑은 날에 잠깐 내리는 비인 ‘여우비’도 그 예다.

예문 -> **여우별**이 나다.

달보드레하다

‘약간 달콤하다’는 뜻의 형용사. 여기서 ‘달콤하다’는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는 뜻이다. 유의어로는 ‘달다’, ‘달크무레하다’ 등이 있다. 어감이 좋아 어근인 달보드레만 떼어내 디저트 음식점의 상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문 -> 깊은 산속에서 조금씩 솟아나는 샘물의 맛이 **달보드레하다**.

윤슬

햇별 좋은 날, 바다를 볼 때 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윤슬이다.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예쁜 순우리말의 뜻과 좋은 어감 덕에 인물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슷한 단어로는 또 다른 순우리말인 ‘물비늘’이 있다.

예문 -> 고향 땅의 봄 바다에 반짝이는 **윤슬**은 아름답다.

허허바다

자칫 띄어쓰기를 안 한 것처럼 보이나 ‘끝없이 넓고 큰 바다’라는 뜻의 가진 순우리말이다. 비슷한 단어로는 망망대해, 만경파, 창해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한자로 이뤄져 있다.

예문 -> **허허바다**로 나가면서부터는 배들을 땀 곳이 없다.



01

법인카드 비대면 신규발급 시행

2023년 12월 5일 법인카드 신규 발급 업무를 100% 디지털 프로세스로 구현하며 기업카드 발급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법인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실시간 자동심사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와 한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번거로운 서류제출 없이 최소한의 정보입력과 약관동의로 최대 10장까지 발급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또한, AI음성봇이 대표자에게 직접 해피콜을 실시해 본인 신청여부를 재확인하고 카드 배송을 안내하는 신기술도 도입했다.



02

산업단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IBK예술로’ 개막

2023년 12월 11일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와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IBK예술로’가 개막했다. ‘IBK예술로’는 산업과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번 1호 프로젝트는 규모와 위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양금속공업과 주변 사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IBK예술로’ 프로젝트에는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 폭넓은 매체를 통해 활약하고 있는 빠키 작가가 참여해 형형색색의 도형들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시각화해 공장과 외부 사거리에 페인팅 작업을 진행했다.



03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축산물시장」새 단장

2023년 12월 사회공헌 사업인 ‘IBK희망디자인’을 통해 인천축산물시장 점포 간판을 교체하고 야외쉼터를 신축하는 등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시장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화된 지역상권의 재생을 통해 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점포 간판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활기차고 생기 있는 분위기로 새롭게 탈바꿈됐다. 또한, 시장 입구에 신축된 야외쉼터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시장 행사기간에는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 페인팅 작업도 실시했다.



04

중소기업 M&A 채널 ‘IBK M&A센터’ 오픈

2023년 12월 8일 중소기업 M&A 중개·주선 신청 채널인 ‘IBK M&A센터(mna.ibk.co.kr)’를 오픈했다. ‘IBK M&A센터’는 M&A를 희망하는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 직접 중개·주선을 신청하고, 본부 전담 직원의 사업장 방문여부 등 M&A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이다. 기업은행 거래유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범용공동인증서를 보유한 법인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8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M&A 중개·주선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IBK M&A센터’를 통해 ▲후계자 부재 기업 ▲신사업 진출 기업 ▲시장 지배력 확대 기업 등 M&A 희망기업 Pool을 확보해 M&A 중개·주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05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7일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25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 구인난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술 우수기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금리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06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전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71명에게 2023년 12월 21일 장학금 11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후원에는 장학생의 가족이 근무하는 기업도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향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IBK멘토링’에 참여해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6년 IBK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총 715억 원을 출연했으며 지금까지 장학금 211억 원, 치료비 158억 원 등을 후원했다.



웹진에서 이벤트 한 번 더!

<with IBK>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에 자신 있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2024년 1월 2일~1월 15일

참여 방법 : 왼쪽 QR코드로 캡처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2024년 1월 20일 내외



The image shows a stylized web browser window with a yellow background. The browser's address bar is empty.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he title '<with IBK> 웹진에서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and a paragraph of text. To the right of the text is a yellow cartoon character with a question mark. Below the text are two buttons labeled 'NO' and 'YES', with a mouse cursor pointing to 'YES'. The browser window is decorated with various icons like a heart, a star, and a magnifying glass. The overall theme is a search game.

<with IBK> 웹진에서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우리 일상에 기운을 북돋아 주고, 소중한 희망을 함께 이뤄가는 IBK기업은행의 매거진 <with IBK>는 호별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찾아가합니다. 올해는 표지에 개성 넘치는 독특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with IBK> 웹진 호별로 구석구석 코너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표지 캐릭터'를 찾아 QR코드를 통해 캡처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정답자 10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힌트: 정답 3곳)

뒷면에
생활 꿀팁 페이지가
숨어 있습니다.

인류의 호기심은 끊임없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기어코 달에 성공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우리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때로
호기심인지도 모르게 불쑥 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AI에게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묻고, 어제보다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레시피를 연구한다.
퇴근길 서점에 들러 자기계발서를 사기도 하며,
잠들기 전 버킷리스트를 잔뜩 써 내려간다.

**올해는 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2024년 흥미로운 세상의 문을 두드려본다.**



생활 꿀팁 파헤치기

청소, 빨래, 설거지는 물론 정리 정돈 등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 속 꿀팁을 한데 모았다.
새해를 맞아 전보다 더 '에코-프렌들리'하게 살림하는 노하우.

! OMG! Gum 붙었네

왕왕 아이들이 껌을 씹다가 잠들어 머리카락에 붙고 결국 잘라냈다는 일화를 접한다. 껌이 붙은 부분에 헤어스프레이, 왁스 무스 등을 바른 뒤 빗질하면 껌과 머리카락을 금세 분리할 수 있다. 혹 신발 밑창에 껌이 붙어버렸다면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아 밑창을 문질러 보자. 껌이 굳으면 떼어 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후 남아 있는 껌 흔적은 네일 리무버로 닦아 제거한다. 옷에 껌이 붙었을 땀 다리미판에 옷과 신문지를 차례로 올리고 다리미질하면 껌을 뺄 수 있다.



! 끈끈하기도 하지, 라벨 제거

상품에 붙은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거나 제거 후 끈적함이 남았다면 식용유나 선크림을 바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닦아낸다. 식품 팩에 붙은 스티커는 헤어드라이어의 열을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접착력이 지나치다면 가위로 스티커를 오려내고 남은 비닐만 분리배출할 수 있다. 택배 송장 같은 스티커는 모아두었다가 생선 가시나 깨진 유리 등을 밀봉 포장할 때 다시 쓰면 된다.



! 옷에 커피 얼룩이 묻었다면

커피, 와인, 땀, 심지어 피 등 갖은 얼룩이 옷에 묻곤 한다. 시중에 얼룩 제거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합적인 얼룩의 성분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라떼나 믹스 커피는 유단백 성분이 있어 커피 색을 제거한다고 얼룩이 아주 지워지지 않는다. 이럴 땀 가정용 세탁 세제 원액을 써보자. 세탁 세제에는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포함되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과일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 등이 있다. 세탁 세제 원액으로 대부분의 얼룩을 해결할 수 있지만, 세제 성분표에서 효소가 들어 있는지 잘 봐두는 것이 좋다. 효소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효과적이다. 효소가 옷감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므로 세탁기에 넣기 10분 전에는 세제 원액을 묻혀둔다. 커피 얼룩이 묻은 부분을 탄산수에 5분쯤 담갔다 살살 비벼 헹구거나 구연산을 희석한 물에 옷을 담그고 하얀 거품이 일면 비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 겨울 외투는 얼마 간격으로 드라이클리닝할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겨울 코트의 경우 한 철에 2~3번 하는 것이 알맞다. 그렇다면 드라이클리닝은 겨울이 끝났을 때가 좋을까, 보관했다가 이듬해 겨울 무렵 하는 것이 좋을까? 오염이 있다면 바로바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옷에 오염이 묻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하면서 깊은 얼룩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 가급적 옷을 보관하기 전에 미리 드라이클리닝하도록 한다.



Life Tip

! '애착' 검은 티셔츠 세탁법

검은 면티를 세탁할 때 표백제인 과탄산소다를 넣으면 검은색이 바래질 수 있으니 넣지 않는다. 가루세제라면 산소계 표백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은색 티셔츠를 세탁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온수 세탁 역시 금물이다. 뜨거운 물로 빨래하면 섬유분자의 활동이 활발해져 의류 간 염색,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 중성세제로 단 시간에 세탁하면 옷감의 손상을 막고 검은색도 잘 유지할 수 있다.



! 김빠진 콜라는 이렇게나 만능이다

머리카락에 붙은 껌은 콜라를 부어 뺄 수도 있다. 기름때 묻은 옷에 콜라를 붓고 몇 분이 지나 빨래하면 말끔히 지워진다. 그릇이나 가구에 묻은 기름때 역시 수건에 콜라를 적셔 닦으면 제거된다. 탕거나 눌어붙은 냄비에 콜라를 붓고 한소끔 끓이면 말끔해진다. 주전자에 콜라를 따르고 하루쯤 두었다가 씻어보자. 내부의 석회가 제거돼 깨끗해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번기에 콜라 캔을 부으면 곰팡이 때가 지워진다. 고기를 재울 때 콜라를 넣으면 육질이 연해진다. 그간 몰랐던 콜라, 특히 김빠진 콜라는 이토록 쓸모가 있다.



! 분리배출과 제로웨이스트

용기는 헹구고 라벨 같은 이물질은 제거해 분리배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염된 플라스틱을 그대로 버리면 선별과 분쇄 과정에서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전체적인 재활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친환경용품 혹은 '살림템'을 구입하곤 하는데, 이러한 소비로 스트레스받기보다는 형편에 맞춰 결정하면 될 일이다. 대체품을 찾다 없으면 유튜브 등을 참고해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고장 나지 않은 멀쩡한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쉽게 소비하지도,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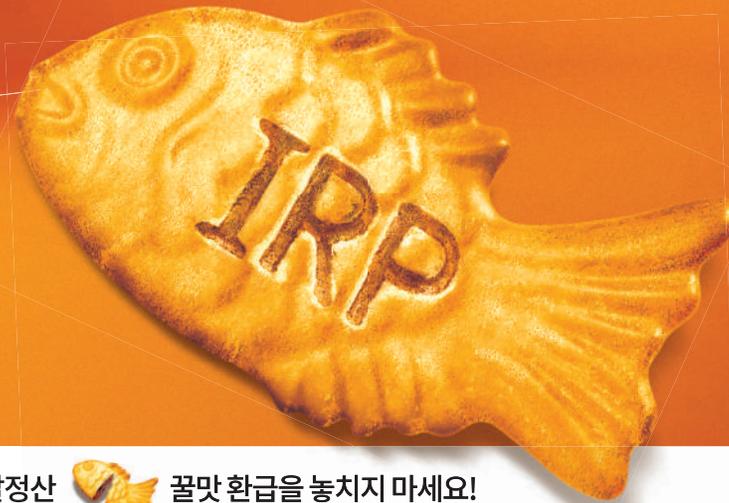


참고

- '65만 유튜브의 세탁 노하우! 세탁설에게 물어봐', YTN 사이언스, 2023.07.20.
- '하나씩 따라하면 나도 살림 전문가', 내일신문, 2021.09.30.
- '떡다 남은 김빠진 콜라의 12가지 새로운 기능', 인사이트, 2017.12.20.
- '껌 밟았을 때 깔끔하게 껌 떼는 법', 팀팁뉴스, 2016.06.16.
- '살림스케치 김향숙의 마술 같은 제로웨이스트 살림법', 여성동아, 2022년 6월호



지금이야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는 후회 없이!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6143호(2023.12.19) 유효기간(2024.06.17) ※ 자세한 문익는 거래명세표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이 가입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